

공군

www.airforce.mil.kr



2006.6 / Vol.336



6월호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훈장'과 군인에게 보훈과도 같은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다.

월드컵의 물결로 전 세계가 떠들썩 할 6월이지만, 오늘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지요?

<테마기획>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의 군인

알아봅시다·훈장 10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제도 13

공군

June 2006 No.336



위기의 순간마다 조국을 구한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의 투혼, 우리 공군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한 밑바탕이 되었음을 명심하자.

발행일자/2006년 6월 1일(통권 제336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대위 강민정, 소위 손제연
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2** 블랙이글스 Forever!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사람과 사람이 쌓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
- 16** 공군혁신
혁신 '3大 支柱' 본격 가동
- 18** 우리의 항공우주사상
동아시아 천문의 보고 '고조선' (上)
- 22** Zoom In
공군시네마 그리고 나의 이야기
- 25**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셸 위 조부 위상규 예비역 소령
- 28** 여기는 다이만
다이만 부대여! 영원하라!
- 30** 참모총장 스케치
- 32** 공군은 지금
- 36** 세계의 우주력
우주인 학교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
- 38** 특별기고
공중 근무자에서 우주인까지
- 40** 유료로 보는 전쟁사
독일과 소련의 위험한 동맹

- 42** 동아리 열전
5전비 족구 동아리를 찾아...
- 44** 생각하는 그림
은 가마를 버린 어머니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외계인과 지구 소녀들의 만남
- 48** 마음으로 읽는 글
쿨하지 말자
- 50** 쉼표 하나, 休
詩와 함께한 제주도의 푸른 바다
- 54** 우리 고전 속의 法
홍길동전
- 57** 공군 글마당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T-50과 정보통신병과의 만남
- 60** 책마을
장영희 교수의 「생일」
- 61** 기상전망대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에
- 62** 독자의 소리
- 65** 독자퀴즈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Black Eagles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중위 배운기

블랙이글스. 홍보 동영상에서 '흑취(黑鷲)라고도 명명되는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비행팀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흔히 '곡예비행'이라 부르는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비행팀이다. 그런데 왜 굳이 '곡예비행팀'이나 '묘기비행팀'이라는 명칭보다는 '특수비행팀'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써야 하는가.

언뜻 보면 블랙이글스 팀이 스스로를 다른 조종사와 비교하고자 하는 자만심의 표출이거나, 블랙이글스 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블랙이글스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블랙이글스의 '특별함'은 그들이 가지는 고유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게 하는 최소한의 프라이드다.

하나. 블랙이글스 멤버들의 '특별한' 실력

블랙이글스의 특수비행은 단순히 묘기를 보여주는 곡예비행이 아니다.

일사불란한 고난도의 기동을 통해 대한민국 전투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과 공군의 단결된 모습을 구현하여 국민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얻고자 하는 특수비행이다.

- 블랙이글스 홈페이지에 있는 〈Black Eagles〉 소개글 중

블랙이글스의 특별함은 우선 팀을 구성하는 조종사들 개개인의 우수함에서부터 드러난다. 블랙이글스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블랙이글스의 멤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비행편대장(비행시 4기 이상을 지휘할 수 있는 공중지휘 사격자)이면서, 동시에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여야만 한다. 물론, 비행 '짬밥'만 늘었다고 블랙이글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등 및 고등 비행훈련 성적이 모두 상위



1. Commander 대장
2. Leader 팀장
- 3, 4. Left & Right Wing
편대 좌·우측 대형의 기준
5. Slot 편대 전체 조연자
6. Lead Solo 2기 기동의 리더
7. Opposing Solo 2기 기동,
단기 기동 임무 수행



사진 : 블랙이글스 중위 박진탁

1/3 이내인 우수한 조종사만 블랙이글스의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선발된 블랙이글스 조종사에게는 특별한 조종복이 제공된다. 비단 날렵한 유선형으로 디자인 된 검은 유니폼만을 애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오른쪽 어깨에는 다른 조종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마크가 있다. 바로 블랙이글스 편대 중 자신만의 독특한 포지션을 나타내는 마크다. 1번기부터 6번기까지 Leader, Left Wing, Right Wing, Slot, Lead Solo, Opposing Solo 등 팀에서 맡고 있는 위치별로 '맞춤형' 마크를 달게 되는 것이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의 특별한 실력은 철저하게 전문화된 포지션을 통해, 하늘에는 색색의 스모크로, 유니폼에는 뚜렷한 마크로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둘. 그들의 팀워크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동들

이제 블랙이글스 6대의 항공기는 여러분의 정면 상공에서 360도 회전 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기동을 선보이겠습니다. 이어서 두 대의 솔로기가 푸른 하늘에 태극무늬를 선보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블랙이글스 아나운서 박진탁 중위의 <2005 서울 Air Show> 멘트 중

블랙이글스의 멋진 에어쇼를 감상하다 보면 그들이 선보이는 아찔한 비행 기동들이 과연 실전에서도 쓰일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놀랍게도 블랙이글스의 기동들은 대부분 공중전에서 응용되는 주요 기동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비행 기동은 특별하지만 또한 모든 공군 조종사들이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이것이 바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블랙이글스의 비행 기동은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나은 1회 비행을 위해 하루 5시간 이상의 비행 준비 및 연구시간을 가진다. 블랙이글스가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된 기동은 대략 30여 개.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기동들을 매년 개발해 낸다. 올해만 해도 'Trail to wedge', 'Goose' 등을 새롭게 개발해 내었다.

이러한 특수 기동들을 개개인의 출중한 능력만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 에어쇼는 편대 비행이다. 그것도 6대나 되는 비행기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조화를 이룰 때만 하늘에 제대로 된 문양들을 그릴 수 있다. 이처럼 6대의 조종사가 심장 박동까지도 같이 뛰어야 하는 에어쇼 기동에 있어 팀워크란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블랙이글스의 구호 또한 바로 '팀워크!' 다.



물론 조종사끼리만 팀워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한대 한대를 정비하는 정비사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블랙이글스 팀에는 각각의 비행기마다 별도의 기장(정비사)이 있으며, 그들은 해당 비행기를 운용하는 조종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종사만 6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비사들 또한 최정에 6명으로 구성된 특수대원인 것이다.

이처럼 블랙이글스가 한 번의 에어쇼를 선보이기까지는 정비사에서 아나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군무원 한 명까지도 필수적이다. 그래서인지 블랙이글스의 홈페이지에는 다른 부대와 달리 대장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같은 크기, 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멋진 기동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블랙이글스만의 '유기체적' 팀워크다.

셋. 국내 유일의 팬클럽이 있는 '특별한' 군부대

어려서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하늘을 날게 해 주고 싶어서...

안산으로 성남으로 데리고 다녔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쉽다.

조금 더 크면 관심을 가지겠지... 기다려 보련다.

멋지고 부러운 친구들.... 블랙이글스.

- 블랙이글스 팬클럽 <Eagle Wings> 홈페이지 게시판 중





공군이 처음으로 에어쇼를 선보인 1953년에는 전쟁으로 움추려 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었고, 88올림픽에서는 잠실 하늘에 오름마크를 그려 전 세계에 '평화로운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듯이, 공군의 에어쇼는 언제나 국민의 정서라는 기류를 타며 함께 호흡해 왔다.

어떤 부대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떤 부대든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블랙이글스만큼 국민들과 가까이서 커뮤니케이션하며 그들의 감정을 북돋우는 군인들 또한 없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블랙이글스의 팬클럽인 '이글윙스'다. 원래 PC통신 천리안에서 결성된 '이글' 동호회가 블랙이글스 팬클럽의 원조였다. 그러다 '이글' 동호회로부터 가치를 친 몇몇 팬클럽이 인터넷 상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합하여 바로 블랙이글스 공식 팬클럽인 '이글윙스'가 된 것이다.

'이글윙스' 홈페이지에 가서 그들이 남긴 글들을 읽노라면 블랙이글스와 공군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자녀가 조종사가 되길 원하는 40대의 가장부터, 10살짜리 미래의 여조종사까지. 연예인 팬클럽 못지 않은 열성을 가진 그들을 보며 왜 블랙이글스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일단 블랙이글스의 공연을 보시라고. 그런 후에는 자신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나아가 자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이다.

이렇듯 국내 유일의 군부대 팬클럽인 '이글윙스'는 블랙이글스의 일곱 번째 멤버이자, 가장 큰 힘이 되는 공군 서포터즈다. 이글윙스는 블랙이글스가 국가 차원의 대형 행사를 치를 때마다 기꺼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있으며, 블랙이글스는 이들 팬클럽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특별 초청 행사를 연 2회 갖고 있다.

지금도 블랙이글스 홈페이지에는 연간 30여 회에 달하는 에어쇼 계획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비록 날씨나 장소 등이 조건에 맞지 않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그들만의 특별한 에어쇼를 보여주고자 제주도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날개를 펼친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개개인의 특별함을 넘어, 팀원간의 특별함도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특별한 존재로 자리잡은 그들. 그들은 모두와 함께 웃었고 또 모두와 함께 울었다. 지금은 비록 에어쇼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의 특별한 날갯짓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특별하고 귀한 보석의 가치는 희소성에도 있지만, 대중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더욱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이다. Ⓡ



블랙이글스의 '특별함'은 그들이 가지는 고유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게 하는 최소한의 프라이드다.





사람과 사람이 쌓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

-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

이 남 훈(프리랜서 기자)

사진 : Katsuhiko Tokunaga, 김윤해(사진작가)

1998년, 미공군 항공에어쇼팀인 선더버드에서는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 공해상을 날고 있던 비행기팀 전원이 바다 속으로 추락한 것. 한두 대의 비행기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비행기가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바다를 향해 돌진한 것은 '미스터리' 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조사 결과 팀의 리더 비행기는 고도를 잘못 계산해 수면을 향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대원들은 리더만을 믿는 상황에서 그들 역시 바다 속으로 자신을 내리꽂았다. 바보 같다. 고도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왜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항공 에어쇼 조종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편대 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리더에 의해 좌우되고, 나머지 조종사들은 철저히 그 리더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비록 그것이 '죽음을 향한 돌진'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당시 그들은 리더에 대한 믿음과 지금 자신들이 추락하고 있다는 이성적 판단 사이에서 순간적인 갈등을 했을 것이다. 리더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나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전대미문의 이 선더버드 집단 추락사건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리더의 판단을 과감히 믿었던 용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퍼포먼스 아티스트, 그들의 영광

대한민국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훈련 장면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크고 검은 이글루 안에 놓여있는 A37-B 기종. 약 10여 분 간의 굉음을 내며 시동을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받은 후 눈앞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다.



쏟아질 듯 한꺼번에 내려와 사방으로 갈라지는 레인폴(Rain Fall), 직선으로 비행하는 한 대의 비행기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비행기가 꺾배기처럼 돌아나가는 스크루롤스(Screw Rolls), 하늘에 거대한 리본 모양을 만들어 내는 스플릿-에스(Split-S)까지. 아찔한 교착의 순간들과 유려한 회전의 곡선, 스모크가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물결은 블랙이글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스틸과 섬세함, 그리고 웅장함이다. 그것은 하늘 위에서 이뤄지는 퍼포먼스 그 자체였고, 그것의 연출자인 조종사들은 곧 아티스트였다. 이른바 '하늘 위의 전위 예술가' 라고 할 만했다.

블랙이글스의 뿌리깊은 역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F-51 무스탕 기종 4대의 비행기가 편대비행을 하면서 최초의 '특수비행' 을 기록했다. '62년부터는 '블루 세이버(Blue Sabre)'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팀이 '67년 '블랙이글스' 로 명칭을 바꾸면서 태동의 시기를 구축했다. 그 후 블랙이글스는 명실공히 공군 조종사들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이 거쳐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블랙이글스의 조종사들은 그 선발에서부터 단단한 프라이드와 서로에 대한 강인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행성적 우수자들을 1차적으로 가려낸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총 팀원 9명의 만장일치를 얻어내는 것이다. 만약 그 대상자 중에서 팀원 중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거나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대상자는 가차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이유는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으며, 또한 대답을 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그는 팀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바로 이것이 블랙이글스팀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서로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만들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영광' 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 그 자체가 영광스럽게 여겨졌어요. 조종사로서 해볼 수 있는 최고의 비행이기 때문이죠. 이런 건 어디 가서도 해볼 수 없어요.

- 손동수 소령

본능까지 이겨야 한다

하지만 그 영광에 가려진 고통과 괴로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힘들다. 그들의 특수비행을 즐기는 건, 보는 사람들의 시각일 뿐이다. 관객들은 하늘을 향해 탄성을 쏘아 올리지만 조종사의 부인들은 땅을 향해 눈물을 쏟는

블랙이글스팀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그들이 겪는 단내 나는
육체적인 고통과 심장을
오그라들게 할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다. '꽁-' 하는 충돌장면이 환영처럼 자신의 목을 숨막히게 조여오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처음 블랙이글스팀을 만나 그들의 홍보 동영상을 봤을 때는 전율에 가까운 매력을 느꼈었다. 하지만 점점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자 차츰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코 '멋있기만 한' 생활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마도 취재 기간 중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블랙이글스팀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그들이 겪는 단내 나는 육체적인 고통과 심장을 오그라들게 할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행연습을 마치고 내리고 온 김태일 소령에게 소감을 물어봤다.

"여름에 옥수를 다 빼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입니다"

특히 비행 시의 중력은 그들의 긴장과 한계를 극한치까지 밀어 올린다. 중력을 설명할 때 그들은 '중력'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Gravity의 앞 글자를 따 'G'라고 말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은 1G의 상태다. 개별 신체의 몸무게가 50kg 이든지, 아니면 100kg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1G인 것이다. 그런데 이게 비행 중에는 무려 최고 6G를 넘어 9G까지 치솟는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최고치의 중력이 몸 전체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라는 그들의 표현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G의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손목과 허벅지, 종아리의 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LCD 모니터의 불량화소처럼' 온 몸에 붉은 자국이 생기는 것이다.

상공에서는 단 1초도 여유를 부릴 방법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시속 600km가 넘는 초고속 비행기들이 유지하는 서로간의 간격은 1~2m,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1~2m 간격을 유지하며 이리 저리 곡예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이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600km라니. 시속 600km라면 초당 1km를 날아간다는 이야기다. 단 0.001초의 판단 실수는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자신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동료까지 죽일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나의 동료로 인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 간의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비행을 하겠다는 용기 자체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비행 중에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 에피소드도 많이 생긴다. '윙크하며 비행하기'도 그 중 하나다. 조종사의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캐노피마저 깨뜨릴 것 같은 강렬한 태양 빛이 신체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느덧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한다. 그 땀이 눈으로 들어가더라도 땀을 닦을 수가 없다. 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깜박임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자율신경이 명령하는 거의 무의식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해당한다. 그러나 곡예비행 상태에서의 그들은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 땀마저 닦아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잉크를 한 상태에서 계속 비행을 해야 하는 것. 우리는 본능을 이겨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던가? 그것도 동료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도 '전투'가 있다. 비록 가상의 적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하지는 않지만 비행 후에는 서로의 비행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때로는 살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간의 믿음을 확보하려는 전투이며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아름다움에 도전하려는 전투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간다. 부(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를 추구할 것이고, 일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이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한다고만 해서 이뤄질 수 없는 그 명예. '최고의 조종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랑찬 블랙이글스'라는 전통과 명예를 지켜가기 위해 그들은 3년 간의 블랙이글스 복무기간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후에 조종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가? 안도의 한숨? 땀 닦기? 아니다. 헬멧을 벗고 제일 먼저 머리 빗질부터 하고 산소마스크 때문에 패인 얼굴의 주름을 문질러 펴는 일이다. 관람객들에게 좀 더 멋있게 보이거나 폼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들을 위해 환호와 탄성을 질러 준 어린 친구들에게 하늘과 공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이다. '멋진 공군, 멋진 블랙이글스'라는.

'죽음을 살아낸다'고 할 정도의 긴장과 인간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들의 수고로움은 이 어린 아이들의 환한 미소 앞에서 새로운 도전정신과 용기가 되어 다시 마음속에 쌓여나간다. ⊕



필자인 이남훈 씨는 프리랜서 기자이자 출판기획자로, 최근 '공군의 매력'에 대한 단행본을 집필하기 위해 공군부대와 공군의 인물을 취재 중이다.

<알아봅시다>

훈 장(勳章, Order)

객원기자 오진욱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시인 모운숙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용사는 무덤도 작은 관도 사양한 채 제 몸을 조국에 바쳤다. 이렇듯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나라가 경의를 표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훈장이라고 할 것이다.

훈장은 나라가 국가나 사회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표장^{標章}이다. 기원 전후의 로마에서 군인·우승자·시인 등에게 훈장 표장으로 준 일이 시초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11세기의 십자군 원정 때의 종교기사단의 표장에서 그 기원을 이야기 한다. 나라마다 훈장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그 의미와 형태가 비슷한 것은 이러한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되어 진다. 가슴에 달 수 있는 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훈장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훈장제도

한국 최초의 훈장제도는 1900년 순종이 훈장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그 후 정권의 교체마다 훈장의 명칭이 바뀌고, 종류도 점차 늘어났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훈장제도를 차용하기도 했다고 하니 나라의 흥망성쇠와 훈장의 발전은 그 의미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훈장제도는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르러서야 확립되었다. 국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면서 각종 훈장^{勳章}령과 포장^{褒章}(상훈법상 훈장의 다

음가는 훈위로 법적 효력 면에서는 훈장과 다를 바 없다)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공포되었고, 몇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11개 부문으로 확정되었다. 11개 부문은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궁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 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체제가 이곳에 모두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훈장은 무궁화대훈장만을 제외하고 다시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의 훈장을 모두 합하면 총 51가지가 된다. 언뜻 종류가 많아 보일 수 있으나 한 나라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니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옛 문구는 훈장 수여의 어려움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 딱 좋은 말이다. 그 값진 훈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훈장의 종류

훈장의 명예가 등급으로 나뉘리 만무하지만 굳이 서열을 따져 설명하자면 최고로 치는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다. 이 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인데,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방국의 전직 국가원수 및 그

영부인에게도 수여 될 수 있다. 그래서 무궁화대훈장만이 등급이 없는 단일 훈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대통령 취임식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훈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보국훈장 정장(소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다 이 훈장을 수여받았으나, 현 노무현 대통령만이 취임식 때 이 훈장을 사양했다. 훈장의 의미로 보아 임기 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현 대통령의 취지는 한편으로 설득력 있는 말이다. 임기 동안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높이 살 만하다.

그 다음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이다. 이 훈장을 수여 받은 서훈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 받을 수 있는데, 목숨을 내건 전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훈장의 의미는 좀 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전투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모든 훈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수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여러 개의 무공훈장을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전투가 아닌 여러 전투에 나가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훈장 수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현의 5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으뜸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군인은 오늘날까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잘 알려진 서훈대상자는 “철성의 용사들”로 불리는 임충식 장군, 김용배 준장, 심일 소령, 김경수 대위, 김한준 대위, 이명수 일등상사, 최득수 이등상사, 김옥상 일병이다. 가장 오래된 부대 중 하나인 7사단에서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28차례의 주요 전투에서 그야말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삼팔선을 돌파한 후에 김일성대하

옥상에 최초로 태극기를 게양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또, 한국전쟁 당시 ‘불사조’ 조종사로 유명했으며, 현재는 미셸 위의 할아버지로도 유명한 대한민국 항공공학박사 1호 위상규 박사도 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5등급이 있다. 최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도중 산화한故 김도현 소령(추서)에게도 이 훈장이 수여되었고, 예비역 상사로 묵묵히 독도를 지키다 떠난故 홍순철 독도의용수비대 대장에게도 1996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수여되었다.

그 밖에 건국에 공헌하거나 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한 공적을 치하하는 건국훈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는 국민훈장, 공무원들의 충실한 직무 이행에 수여되는 근정훈장이 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군인이나 군무원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역시 각 부문에 따라 그 공적을 인정받는 자에게 수여된다.



무궁화대훈장

훈장 수여의 절차

그렇다면 서훈대상자는 어떤 심의를 거쳐 훈장을 수여 받게 되는 것일까?

훈장의 서훈敍勳 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공적 앞에 '비상한'이나 '혁혁한', 또는 '뚜렷한'이라는 형용사가 전제되어 있다. 단어는 비록 3음절일지라도 그 내용이 실로 광범위하고 견고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

서훈의 추천은 각 국가기관의 장에 의하거나, 총무처 장관을 거쳐서 한다. 총무처에 상훈심의회를 따로 두고 있으며 그렇게 추천된 서훈대상자는 또다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이것으로도 다 끝나지 않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만 수여되는 것이 훈장이다. 그

러니 그 가치를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훈장은 수여 받은 본인만이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훈장은 보상을 전제로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서훈대상자의 공적을 치하함으로써 명예를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면을 통해 지금까지 훈장을 수여 받으신 모든 분들과 힘찬 경례를 보낸다. 🇰🇷

촬영/공군본부 중사 편보현

촬영협조 및 자료제공/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042-870-1000)

훈장(Order)의 구성



무공훈장 정장(소수)

정장(正章, Badge)

어깨에서 가슴 아래로 두르는 대수大綬에 연결된 정장, 가슴 중앙에 오도록 목에 거는 중수中綬에 연결된 정장, 왼편 가슴에 다는 소수小綬로 된 정장이 있다.

부장(副章, Star)

왼편 가슴에 다는 수가 없는 메달

약장(略章, Ribbon)

좌측 가슴 호주머니에 단다.

금장(襟章, Lapel Badge)

왼편 옷깃에 단다.



보국훈장 부장



보국훈장의 금장(위)과 약장(아래)

수(綬, Cordon)

정장을 연결하는 천으로 훈장 종류 및 등급별로 색상과 크기를 다르게 만든다.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제도

제대를 3개월 앞둔 나군인 씨는 입대한 지 15년이 되는 부사관이다. 이 경우 나씨는 제대 후 어떤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보훈사업이란 무엇인가

보훈사업은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정책의 추진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의 시행

특히 작년 12월 1일부터는 보훈에 관한 기본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올해 5월 9일에는 동법에 근거한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이 법은 첫째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등 대상별로 개별법률이 제정되어 보훈정책의 통일성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로 지원·관리 위주의 보훈정책으로 편중된 기존의 사업을 지양하고 보훈대상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후세에 교육시키고 계승하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기본법과 보훈위의 활동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각종 보훈제도 중 군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제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 대 상

제대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인을 말하는데, 주로 지원을 받는 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제대군인과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다.

◆ 지원내용

1. 나군인 씨는 전역 후 3년 이내에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보호 대상기관」 취업시 시험성적에 가산점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희망신청에 따라 고용명령을 받아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취업보호

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전역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나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사람

내용 - 취업보호 대상기관에서 1회의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다(단, 업체의 통폐합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재취업 가능).

신청 안내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1588-2339, www.vnet.go.kr)

※ 채용시 우대

-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채용시험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결정시 군 복무경력 포함

2. 다음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나씨 본인의 경우 나씨가 대학학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나씨 가족의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된다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

구 분	자녀교육 지원	본인교육지원
지원대상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 (4인가족 기준, 월 2,954천원 미만)	10년 이상 군복무자
지원내용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지원신청 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요건 확인 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3. 나씨가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5개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개의 군병원에서 응급처치와 외래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

대상	진료병원	지원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보훈병원(5개)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
	군병원(20개)	응급처치와 외래진료 무료

4. 나씨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구입, 전문대 이상 학교를 다니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한도와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부지원

종 류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생활안정, 학자금 대부

대 상 :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1962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사람

지원신청 : 보훈관에서 연중 접수(단, 학자금대부는 2월, 8월 접수)

5. 나씨가 사망한 경우 나씨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배우자 사망의 경우 합장도 가능하다.

호국용사묘지안장 지원

대 상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배우자 합장 가능)

현 황 : 국립영천호국원(경남 영천),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

6. 오랜 군생활로 인해 나씨는 사회의 직업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나씨는 제대를 앞둔 시점부터 다양한 사회적응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회적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가. 사회적응교육

대 상 :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전역 예정자 포함)

내 용 : 변화관리능력 배양, 자기분석, 직업선택도 파악, 가치분석, 재산관리, 재무설계, 건강관리를 통한 제2의 생애설계

신 청 : 전역예정자의 경우 소속부대,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센터(1588-2339).

교육비는 100% 국고 부담한다.

나. 직업능력개발교육

대 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내 용 : 취업소양교육, 소자본창업교육, 경영관리자교육 등

7.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내 용 : 전문가 진료상담, 교육지원, 온라인교육 등

연 락 처 : 1588-2339, 방배역 2번출구 양지빌딩 3층

제대군인 취업전문사이트 www.vnet.go.kr 운영

참고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혁신 '3大 支柱' 본격 가동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혁신관리과 소령 **홍준표**

혁신은 왜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도 '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공군장성 혁신 大토론회' 동영상물과 홈페이지, 각종 혁신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참모총장님께서 혁신을 하자고,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셨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나 정부조직이나 할 것 없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곧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자명하다.

최근 Fortune지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과거에는 40년 만에 61%가 TOP 100에서 탈락한데 비해, 최근에는 10년 만에 67%가 TOP 100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도 1997년 30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 11개의 대기업이 부도나 워크아웃되어 2004년에는 19개의 대기업만이 살아남았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경영권 안정' 등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과거방식을 고집하는 기업은 언제나 시장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변화와 혁신 현장의 주인공으로, 변화와 혁신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는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Chance(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가슴에 되새기자.

공군본부 '혁신 Academy' 운영

'혁신 아카데미'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영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신지식인 1호' 심형래 영화감독의 초빙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심 감독은 강연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군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교육' 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년간 '장성 Academy'를 운영해 온 전라남도 장성군 김홍식 군수의 강연회도 개최되었다. 꾸준한 '교육'으로 지방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온 민선 3대의 김 군수는 10년간 480여 회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군수 자신의 술선수범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만도 105억에 이른다.

또한 국내 1호 소몰리로 1976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근무한 서한정 와인나라아카데미원장의 특별 강



「혁신 아카데미」의 서한정 와인나라아카데미원장 초청 강연



「혁신아카데미」의 (주)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초청강연

연회에도 열렸다. 서 원장은, “와인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며 대화할 시간이 많아져 가족이 화목해지고, 술도 적게 마시게 되어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어서 좋고,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더라”며, 우리의 건전하고 격조 높은 음주 문화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혁신 아카데미는,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장병들이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와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모든 강연 자료는 공군본부 인트라넷 「공군혁신 홈페이지 혁신 아카데미 창」에 게재하여 정보의 공유를 통해 간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3인의 혁신 Warrior」 On Line 자체활동 시작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대외부서와 예하부대 소속 혁신 Warrior들의 한결 같은 아쉬움은 열정과 역량에 비해 활동할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Warrior들은 최초의 계획대로 공군본부의 혁신과 관련된 사항은 혁신 홈페이지 '33인의 혁신 Warrior' 방을 활용하기로 하고 5개의 분임을 조직하여 이들만이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여기서 주고받은 자료와 의견들은 정기회의에서 공군본부의

혁신추진 현황과 함께 토론·검토하여 결과를 종합하여 참모차장님께 보고하고 이를 '성과관리 TF'에 이관하여 피드백 과정을 관찰하게 된다.

금번 2차 회의는 '공군의 강·약점, 기회·위협'의 분석을 통해 강점은 기회로 만들고 약점과 위협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토의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토의를 통해,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해 우주작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집 능력 구비, 공군의 위성자료 처리 및 이용 기술 능력 강화, 미래 전쟁 양상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위한 작전개념의 발전방향 설정 및 작전수행 기반체계 구축, 공군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조직 활성화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외부서 근무장교와 공군본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공군을 지칭하는 용어를 기술군에서 정보화 과학군의 개념으로 적극 바꿀 것도 제안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혁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성과관리팀에 자료를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공군 혁신에 반영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33인의 혁신 Warrior들은 공본 혁신관리팀과의 협조를 통해 더욱 힘차게 혁신의 현장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공군본부 BSC TF'와 '33인 혁신 Warrior'들의 워크숍 현장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

동아시아 천문의 보고 寶庫 ‘고조선’ (上)

박 선 면(사후 75기, 예비역 대위)

본 코너는 ‘하늘리~ 우주로!’ 라는 공군의 모토를 보는 순간, 필자도 공군출신으로 공군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군’이라고 하면 아직도 하늘에 항공기를 띄우는 일반 생각하고, 우주선이나 우주의 개발, 위성 등의 사업들은 경제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활동분야나 사고체계를 살펴보면,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계 최초로 별자리를 생각해냈던 수메르, 바빌로니아인들보다 결코 크게 뒤지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때 이미 나름대로 완벽한 하늘 구조를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우주관측소를 운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많은 과학도구들의 발명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아라비아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우주 별자리 해석기반을 발전시켜 왔다. 그 기반이 후대 고려 말과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국인들도 찢쩍맨다는 주역의 사상적 해석체계를 중국 주희의 사상보다도 더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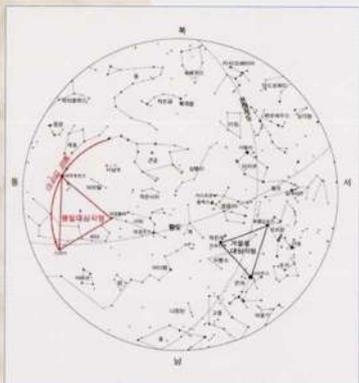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면, 자랑스러운 면을 재인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양 천문학의 발달

‘오늘날 별자리의 기원’은 서구 별자리로, 기원전 수천 년경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던 셈족계 유목민인 칼데아인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지역의 표석에는 양·황소·쌍둥이·게·사자·처녀·천칭·전갈·궁수·염소·물병·물고기자리 등 태양과 행성이 지나는 길목인 황도를 따라 배치된 12개의 별자리, 즉 황도 12궁을 포함한 20여 개의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2,000년경에 지중해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바빌로니아·이집트의 천문학이 그리스로 전해져서 별자리 이름에 그리스 신화 속의 신과 영웅, 동물들의 이름이 가미되었다. 세페우스·카시오페이아·안드로메다·페르세우스·큰곰·작은곰 등의 별자리가 그러한 것들이다.

그 후 서기 150년경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 천문학을 집대성한 <알마게스트>란 책에는 북반구 별자리를 중심으로 한 48개의 별자리가 실려



현재의 별자리

있다. 그 분포를 보면 황도 상에 있는 별자리가 12개, 황도 북쪽에 있는 별자리가 21개, 황도 남쪽에 있는 별자리가 15개 등으로, 이 별자리들은 15세기까지 유럽에 널리 알려졌다. 15세기 이후에는 원양항해의 발달에 따라 남반구의 별들도 다수가 관찰되어 새로운 별자리들이 첨가되기 시작했다.

근대 천문학의 태동과 함께 망원경이 발달함에 따라 어두운 별들을 관측할 수 있게 되어 작은 별자리들을 신설하게 되었다. 17세기 말에 헤벨리우스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 여우, 작은 사자, 방패 등의 별자리가 그 예이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별자리 이름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그 경계도 달라서 자주 혼란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하였다. 때마침 1922년 발족된 국제천문연맹에서 별자리의 제통 정리 제안이 거론되고, 1928년 총회에서 하늘 전체를 88개의 별자리로 나누어 황도를 따라서 12개, 북반구 하늘에 28개, 남반구 하늘에 48개로 모두 88개의 별자리로 확정하였다. 또 종래 알려진 별자리의 중요별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천구상의 적경과 적위에 나란한 선으로 별자리의 경계를 정하였다. 그리고 라틴어 소유격으로 된 별자리의 학명을 정하고, 3문자로 된 별자리의 약부호를 정하였다. 이것이 현재 쓰이고 있는 별자리이다.

이 88개의 별자리 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북두칠성 등 67개이고, 일부만이 보이는 별자리가 남십자 등 12개, 완전히 보이지 않는 별자리는 물뱀 등 9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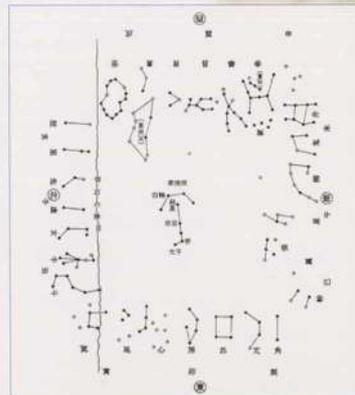
동아시아 천문학의 발달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의 천문학은 어떻게 발달되어 왔을까? 중국 수나라 단원자(丹元子)는 별자리를 3원(垣) 28수(宿)로 나누고, 이를 암기하기 쉽도록 칠언시의 형태로 서술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있는 <보천가>에는 적도 근처에 있는 동방의 각(角)·항(亢) 등 별자리 7개, 북방의 7개, 서방의 7개, 남방의 7개 등 총 28개의 별자리(28수)와 북극 주변의 별자리인 태미원(太微垣)·자미원(紫微垣)·천미원(天微垣) 등이 함께 암기하기 쉽도록 칠언의 형태로 씌어 있다. 더하여 '은하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 天河起沒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별을 3원과 28수로 나누어 총 283개 별자리와 1,464개의 별을 기록한 <보천가>는 이후 천문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었다.

1972년 일본 나라현(奈良縣)의 다카마쓰(高松塚) 고분 벽화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와 유사한 사신도(四神圖) 및 해·달, 성수도(星宿圖) 등의 표현이 발굴되었다. 이 벽화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소위 귀화인에 의해 8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고송총의 천장 성수도에는 중궁(中宮) 부분에 북극성좌 5성 및 사보(四輔)(ㄷ자 모양의 4성)라는 별자리와 주변 둘레에 28수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그 구성이나 별의 개수 등으



중국 수나라 <보천가>의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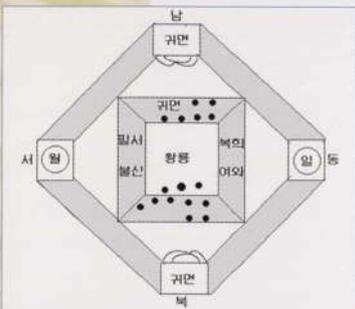
일본 고송총 벽화의 천장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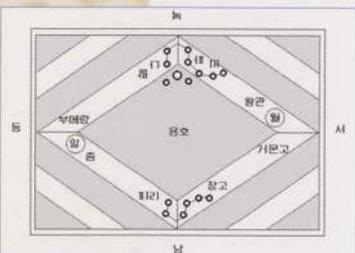
기토라 고분의 천장 천문도



집안오회분의 내부



통구사신총 안칸 천장 별자리



집안오회분 5호묘 안칸 천장 별자리

로 보아 당시의 북극성이 포함된 별자리를 그린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의 사보 4성과 북극 5성 별자리는 바로 그 당시의 북극점 주변을 표현하던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방식이 1998년 발견된 기토라 고분(7세기~8세기 초)의 석실 천장 천문도에서도 발견되었다. 고송총과 인접한 지역인 나라현 아스카(天日香) 지역의 기토라 고분 천문도는 세계 최고(最古)의 전천 천문도(1300여 년 전)로 추정되며, 약 600개의 별과 34종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이 별자리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관측 지점이 평양 주변과 일치하는 북위 38~39도 지역으로 추정되어, 고구려의 천문지식이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고구려나 고려시대에 그려진 별자리 그림에는 그러한 사보 별자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에 북두칠성과 함께 북극성좌로 생각되는 3성이 그려져 있다.

‘북극 3성·북두칠성’ 형식의 전형, 고구려 고분벽화

이런 ‘북극 3성·북두칠성’ 형식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 집안오회분 4호묘·5호묘 및 통구사신총의 북쪽 별자리로 그려진 ‘북두칠성·대소 3성’ 체제이다. 대소 3성은 가운데 별이 좌우별보다 더 크게 강조되어 있으며, 이 세 고분에 똑같은 구도로 북두칠성과 함께 그려져 있다. 또한 소위 사방위 표지 체제인 북두칠성·남두육성·일상·월상과 같은 칸이 아니라 가운데 천장 막음들의 북쪽 부분에 그려져 있어 북극성 별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운데 큰 별이 북극성일 것이다.

이 집안 지역 세 고분의 별자리는 동쪽의 일상(日象)과 서쪽의 월상(月象) 및 북쪽의 북두칠성(北斗七星), 남쪽의 남두육성(南斗六星)이라는 동일한 구도의 천문 방위표지 형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들이다. 여기서와 같이 남두육성을 남방 지표로 삼는 체계는 중국이나 일본의 성수도에는 보이지 않는 고구려만의 특징적인 형식이다. 이 일월과 남북두 별자리 외에 북쪽 북두칠성 아래쪽에 그려진 삼성 형식 또한 세 고분에 공통적인데, 역시 고구려에만 보이는 형식이다.

이 때 북극 3성 배치 모양은 일직선 배열(집안오회분 4호묘, 통구사신총)이기도 하고, 삼각형 배열(집안오회분 5호묘)이기도 하다. 이중 삼각형 배치의 3성은 이들 고분보다 앞선 시기의 약수리 고분(5세기 초) 북쪽 북두칠성 아래에 그려진 3성(연결선이 있는 고깔 모양)과 서로 통하는 구조이다. 또한 일직선 배열의 3성 형태는 각저총, 무용총에서 북두칠성 아래쪽에 그려진 북쪽의 3성 별자리와 같은 구조로 생각된다.

고려로 이어진 고구려의 별자리 표현방식

고구려 별자리에서 북쪽 북두칠성과 함께 표현된 3성을 북극성 별자리로 파악하는 맥락은 고려시대 서삼동고분(12세기 초, 안동군 녹전면 서삼동)의 중궁 별자리 표현 방식에서도 찾아진다. 고려 서삼동 별자리 그림은 청록색 고분 천장 안쪽에 짙은

푸른색으로 지름 80cm의 원반을 그리고 그 위에 별자리들을 그렸다.

이 원반 둘레 부분에 현재 165개로 확인되는 28수 별그림을 그렸다. 별 각각은 지름 1cm가량의 검은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속을 붉게 칠한 형태이다. 사벽면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처럼 사신도와 인물도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그려진 28수 그림은 고구려의 덕화리 2호분이나 진파리 4호분에 그려진 28수 이후 우리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서삼동 28수는 그 별의 개수(165개)나 모양 등에서 182개의 28수로 구성된 조선 초 '천상열차분야지도'로 전이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28수 그림 안쪽 중궁에 9개로 구성된 별그림은 배치 구조상으로 보아 '북두칠성 + 북극 3성' 형식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별 개수가 하나 모자라므로 확정적인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모양상 중국식의 '천추·사보' 방식은 아니며 고구려 식의 중국 표현 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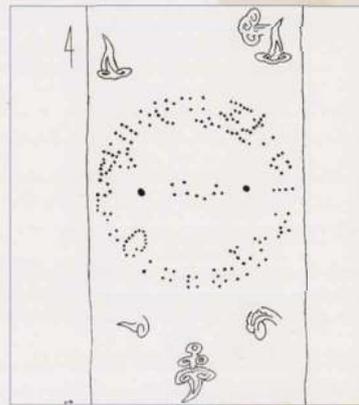
더구나 이 중궁 9성 좌우에 해와 달로 생각되는 큰 별 2개가 함께 그려져 있어 고구려 별자리 표현 방식에서 늘 중시된 일상·월상 맥락과 서로 통한다. 사벽면의 사신도 그림 역시 고구려 벽화와의 연계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서삼동 중궁의 9성 표현이 고구려 전통인 '북두칠성·북극 3성' 형식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중궁에 북두칠성을 그리는 형식은 서삼동 별그림 외에도 13세기 고려 신종(神宗, 1197-1204)의 능묘인 양릉(襄陵) 천장 별그림에도 나타난다. 서삼동 별그림과 유사하게 주변에 28수 그림을 그렸으며, 가운데에 북두칠성과 해 또는 달로 생각되는 큰 별이 하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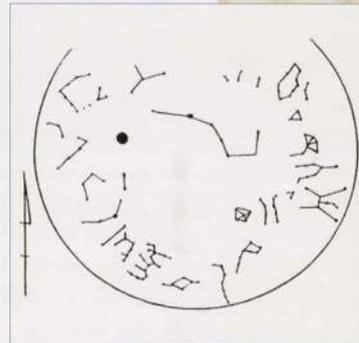
공민왕(1351-1374)의 능묘인 현릉 천장에도 그와 유사한 별그림이 발견된다. 태양 원반(선홍색 큰 별)과 달 원반(누런색 큰 별)을 좌우에 두고 북쪽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어, 북두칠성이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고려로 이어진 고구려 별자리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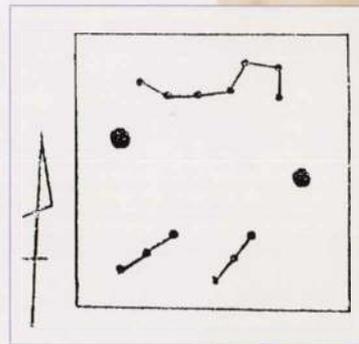
필자 **박선면**은 공군사관후보생 75기(예비역 대위)로,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에서 한·중·일 비교문화를 전공하고, 부산 경상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87년 이후 Venkos21 벤처소기업인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최초의 '디지털자산경영관리사', BIZ컨셉터로서 기업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고려 서삼동 벽화묘의 천장 별자리



고려 신종의 양릉 천장 성수도



고려 공민왕의 현릉 천장 별자리

공군시네마

그리고 나의 이야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병장 이원재

큰 규모의 공군 기지라면 한 곳씩 갖추고 있는 기지강당. 평소엔 각종 행사와 교육 등에 활용되지만, 주말이 되면 장병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 '공군시네마'로 변신한다. 영화관이라면 당연히 영사기의 필름을 돌리는 영사 기사가 필수. 이번호에는 강당 영사실에서 장병들을 위해 영화를 보여주는 '공군시네마 천국'의 영사기사, 영화 상영병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영화 상영의 정석

차르르르르르...

필름이 영사기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좁고 어두운 영사실 벽에 부딪혀 귓전을 울린다. 영사실의 좁은 창으로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과 관객들의 뒷모습. 금방이

라도 영화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가 흐를 것 같다.

거의 모든 공군 기지마다 위치하고 있는 강당에서 영화를 트는 병사, '영화 상영병'이라고 하면 흔히들 위에서 말한 장면을 머릿속에 오버랩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낭만보다는 오히려 숨막히는 스틸러물의 타이트함이 배어 있는 업무에 가깝다.

본격적인 영화 상영 준비가 시작되는 것은 화요일. 이때부터는 영화 필름 배급사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주에 받아들 수 있는 영화 필름을 구두계약하게 된다. 우리 부대는 주로 충무로의 영화 배급소를 이용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충무로에서 주는 필름을 납죽 받게 되면, 영화관들을 전전하다가 화려한 일생을 마감하고 자동차 극장, 혹은

각종 시의 복지시설들을 돌고 돌아 닳고 닳은 기름때 가득한 필름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영화 필름을 선정할 때의 통화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도의 심리전과 설전(舌戰)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구두로 계약하게 된 필름은 수요일에 한국 영화의 메카, 충무로에서 받아오게 된다.

파란색 필름 박스를 신고 부대로 돌아오는 개선장군과도 같은 위용을 느끼는 것도 잠시, 장병들의 기대감만큼이나 무거운 파란색 필름박스의 무게가 실려 온다.

영화 필름을 받아오고 나서는 영화의 출연진, 감독, 내용, 장르 등을 요약해서 단장님의 결재를 받게 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인터넷에 공지사항이 뜨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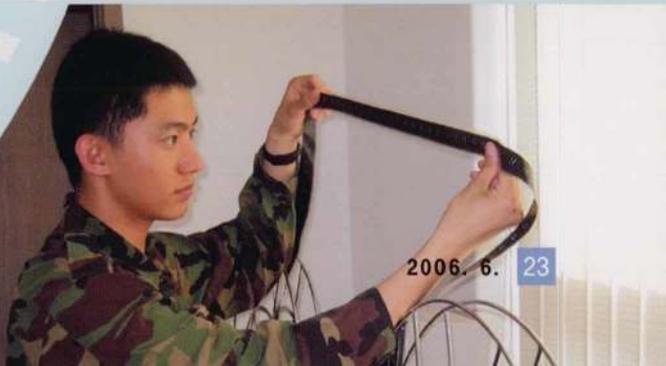
주로 목요일쯤에 이 모든 게 완료되는데, 바로 목요일부터 우리 사무실은 무차별 폭격을 당하게 된다. 거대한 전화 상담실에서 폭주하는 전화에 몰두하는 수백 명의 상담원들... 바로 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영화와 차이점이 있다면, 영화 속 상담원들은 수백 명, 난 한 명이라는 것! 전화하는 사람들도 가지각색, 전화하는 스타일도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묻는 건 단 하나, “영.화.뫼.예.요.?” 이 내용의 전화가 아침부터 수십 통이 걸려온다.

사고는 방심할 때 터진다!

이렇게 질곡이 가득한 목요일이 지나면 금요일에는 가져온 영화 필름을 영사기에 장착할 수 있게 편집을 하게 된다. 영화 필름은 보통 지름이 팔꿈치 만한 롤이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어 붙여서 두 개의 커다란 롤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에야 손에 익어서 쉽게 척척 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초기엔 정말이지, ‘짓나니 한숨이요, 느는 것은 주름이라’는 말이 딱 알맞았다. 실수 연발에 순서는 헛갈리고... 필름 편집을 하는 시간은 길고도 길었다.

- 선명한 화질을 위해 렌즈의 초점 조절 중
- 기지 곳곳 눈에 잘 띄는 곳에 포스터를 붙인다.
- 친절하게 금주의 영화를 알려주는 ‘친절한 원재 씨’
- 영화 필름 편집 중인 이원재 병장



그러나 지금은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통사고는 한참 운전이 맞들어 3년차에 제일 잘 터진다고 하지 않는가? 그 날은 웬지 기분이 좋았다. 화창한 날씨에, 즐거운 마음으로 필름을 편집하려 필름 통에서 필름을 집어 들었는데, 그만!! 미끌~하고 놓쳐버렸다. 바닥에 나뒹구는 필름은 보란 듯이 가운데가 쏙 빠져 버려 있었다. '그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자! 지금이라면 수술이 가능해!' 라는 마음으로 널브러진 필름을 집어 들고 수술을 감행했는데, 사태는 점점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으며 혼란과 공포 속에 빠져 들었다. 그 날 나는 내 군 생활 내내 흘릴 식은 땀을 한꺼번에 다 흘렸다.

영화 상영, 한밤중의 불꽃축제

이렇게 금요일이 지나면 드디어 영화를 상영하는 토요일이다. 그 질곡의 나날들을 거쳤기 때문일까, 영화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토요일엔 오히려 기분이 들뜨고 신이 난다. 영사기에 전날 편집해두었던 필름을 장착하고 삼삼오오 객석에 앉아있는 전우들을 보고 있으면 그제야 조금은 내가 '시네마 천국'의 소년이 된 기분이다.

또 하나, 나의 즐거움은 취미 삼아 내가 모으는 팝 가수들의 콘서트 DVD를 영화 전까지 틀어주는 일. 처음엔 관객들의 심심함도 달랠 겸 틀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꾸준히 틀고 있다. "이 공연 정말 재미있네요!", "다음에는 어떤 공연 틀어주시길 거예요?" 등의 말을 들으면 내 즐거움을 전우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행복해진다.

마침내, 두시가 되면 영화관 조명이 꺼지고, 잠깐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나면, 그동안의 희로애락이 절절히 새겨진 고대 화석 같은 필름이 영사기로 들어가 비로소 살아 숨쉬게 된다. 관객들은 그 숨결 속에서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면서 한 주간의 생활을 위로 받고, 자신의 사랑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영화관에 불이 켜지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관객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불이 꺼진 텅 빈 영화관을 정리하면서 나도 다시 힘을 얻는다. 영화는 관객에게, 관객은 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마치 한밤중 축제의 불꽃놀이 같은 영화 상영은 그렇게 끝이 났다.Ⓜ

-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필름을 장착
- '공군시네마'의 영사 기사 정재준·이원재 병장
- 이것이 바로! 영화 편집기



미셸 위 조부 위상규 예비역 소령



한국전쟁의 영웅에서,
이제는 미셸 위의 할아버지로

BRAVO, MY LIFE!

원고정리 편집실/촬영 공군본부 병장 이 현 우

“ROKAF WAR VETERAN”.

전남 장흥에 있는 위상규 웅(80, 예비역 공군소령, 1955년 예편)의 자택을 찾아갔을 때, 그는 대한민국 공군 참전 기념 모자를 쓰고 있었다. 처음엔 공군을 대표해서 찾아간 기자에 대한 유명인사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취재 후에 그에 대한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면서,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그의 사진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국가방위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신을 자랑스러워 한다. 하지만 자랑할 거리가 이것만은 아닌 그에게 그의 모자가 주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다.

서울대학교 공대 항공공학과 1회 졸업, 서울대학교를 지금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교수, 자녀를 세계적인 교수와 의사로 키운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져 버린 천재 골퍼 미셸 위의 할아버지. 그의 자랑거리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굴직한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삶을 되돌아보며 매일같이 자랑으로 삼는 것은 6·25 당시 공군조종사로 참전했던 군복무의 경험이다.



위상규 웅의 손녀, 천재 골퍼 미셸 위의 어린시절



모스키토 대대에서 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위상규 (예)소령



1950년대 공군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어찌 보면 그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문간에 걸어놓은 통일전망대 351고지의 기념사진을 보여주며 “저 뒤로 임택순이 전사했어”라는 말을 기자에게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른다. 임택순의 전사 이후, 출격 때마다 자신의 생존도 불확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렇게 97회를 출격했고, 그리고 살아남았다. 억지춘향 격의 결과론인지 모르지만 그의 생존은 위성미를 낳았다. 우리는 때로 위성미를 통해 그를 접하지만, 미셸 위는 사실 할아버지의 수많은 전투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나 다름없다.

참전의 기록

공군의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이나고 묻자 그는 ‘proud of’ 라는 두 개의 영어단어로 답했다. 무엇이 자랑스러운 것이었을까? 공군사(空軍史 第一輯, pp.172~174 참조)를 참고하여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던 해, 한국전쟁은 터지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공군의 장교로 입대하게 된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 5공군의 6147전술항공통제(TAC)대대로 파견을 나가 공지협동작전(空地協同作戰)의 핵심역할을 한 T-6 Mosquito-observer(이하 모스키토)에 탑승하게 된다.

모스키토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지상군으로부터 공격목표에 대한 공격요청을 받으면 즉시 모스키토가 목표 상공에 이르러 이를 확인하고 기지에 연결하여 전투기대(戰鬪機隊)를 불러낸다. 그리하여 모스키토의 유도하에 전투기대는 적의 주요시설을 분쇄(粉碎)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결과를 모스키토가 일일이 확인한다.



351고지를 다시 찾은 위상규 옹. 사진 뒤편으로 공사 1기 임택순 공군 중위가 추락, 전사했다.

이러한 작전을 그는 97회나 수행했고, 그 와중에 그는 사관 1기생인 임택순 중위의 사망도 목격한 것이다. 공군사(空軍史)는 모스키토 요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전투조종사에 못지 않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에도 수차(數次)씩 출동하여 전투기 작전에 협력하여 그의 이목(耳目)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대한공군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

전후 그는 공군에 남아있길 바라는 주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항공교육과 서울대학의 정착을 위해 교편을 잡았다. 하지만, 당시 공군장교들의 강한 인상은 아직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영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던 시절, 작전수행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영어를 장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전쟁 중에 새벽 두 시까지 공부하던 공군장교들의 학구열은 엄청났으며, 그 습득능력도 뛰어났다고 그는 회고한다. 그들이 F-51을 타기까지 걸린 짧은 시간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전쟁 중에 조종기능을 습득하고, 새벽 두 시까지 영어를 배우던 그 열정이 지금도 그의 증언 속에서 생생하게 다가온다. 전국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인재들이 모였다는 창설 당시의 공군사관생도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Bravo, your life!

그러한 인재와 함께했던 그가, 이제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내어 세계가 그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미셸 위의 꼭 다문 고집스러운 입술은 누가 보아도 위 옹의 손녀딸이다. 그의 몸은 지금 고향 장흥으로 돌아가 있지만, 그의 투혼과 열정은 이제 자랑스럽게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을 표현한 말이 아니었을까? 「Bravo, my life!」 📍



다이만 부대여! 영원하라!

제5전술공수비행단 대령 하 태 직(제58항공수송단 2대 단장)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기지에 파병되어 주둔하고 있는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의 단장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열정을 쏟았던 지난 1년.

공군은 월남전 은마부대를 시작으로 걸프전의 비마부대, 아프가니스탄전의 청마부대 등 많은 해외 파병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다이만 부대와 같이 대규모 병력과 항공기가 해외에 1년 이상 장기간 주둔하며 실존하는 대공위협 상황 하에서 전장 공수임무를 수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전장 속 작전환경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낸 다이만 조종사, 정비사 및 부대원 모두가 나옴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자 진정한 전우들이었다.

‘집중 혹서기 비행안전대책’ 시행

6월에서 9월까지의 ‘집중 혹서기’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이른바, 찜통더위 그 자체였다. 조종사, 정비사들은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 이하의 조건에서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집중 혹서기 비행안전대책’을 치밀하게 수립·적용하여 혹서기 내내 새벽에 출근하여 비행완료 후 무사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었다.

더불어, 우리 정비사들은 이곳 사막지역에 적합한 최상의 정비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 실전에 적용하였다. 정비사들은 열사의 태양아래 강한 모래바람과 싸우며, 이글루 앞에 노천 주기되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항공기들을 최상의 정비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정비하여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유지해 주었다. 걸프전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 주요부분에 보호커버를 씌우고, 사막 기후 특성에 맞게 15일, 30일, 90일 주기로 중점 정비 항목을 예방 점검, 주요결함 발생빈도를 최소화함으로써 동맹국들에게 모범사례가 되었다.

지금까지 부여된 임무완수에 뜨거운 열정을 쏟은 조종사, 정비사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 지면을 빌려 임무완수에 매진해온 조종사, 정비사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공군 대표 '다이만 부대'

다이만 부대는 국가정책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VIP와 각계 대표, 합참 및 각 군 본부 지도방문단의 주요 공수임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며 우리의 임무능력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귀빈들에게 중동의 전장지역 상공을 대한민국의 항공기로 비행한다는 뿌듯함과 함께 우리 비행단의 일사불란한 작전 수행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공군 대표 '다이만 부대'에 대한 큰 신뢰감을 심어주며 세계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군사 외교 측면에서는 동맹군 임무수행에 따른 한·미간 결속 증진과 주둔 동맹국간 예의와 절도 있는 행동으로 우리 군의 잘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맹군 마라톤 대회 개최와 태권도 동아리, 한국어학당 운영 등으로 동맹군 장병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원으로서 동맹군간 동료애를 더욱 굳게 다지는 데 크게 일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장병들에게 해외 파병의 경험과 산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중부사연합항공작전본부(CAOC), 이라크다국적군사령부(MNF-I), 동맹군지상구성군사령부(CFLCC) 등 선진 군대의 임무 브리핑 정보에 대한 교육으로 장병들이 임무수행의 큰 틀을 이해하는 가운데 본인의 맡은 임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파병의 새 역사, 다이만 부대

다이만 부대는 올해 3월 전투임무수행 1,000회 출격, 4월 말 3,000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등의 대기록을 갱신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파병 역사를 새롭게 바꿔 나가고 있다.

우리 공군 파병사를 보면 월남전 해외파병 임무부터 공군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송기 전력이었다.

결프전,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이라크전에서도 수송기 전력의 진가는 자이툰 사단뿐만 아니라 동맹군 지원 공수임무 수행으로 더욱 크게 발휘되고 있다. 다이만 부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파병역사의 주역으로 맡겨진 임무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부대장으로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려 노력하며, 참모총장님의 지휘지침이 담겨있는 '진실된 빛은 결코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진광불휘'(眞光不輝)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 본다. "다이만 용사들이여! 진정 그대들이 자랑스롭습니다. 계속 영광을 멋지게 이어 나가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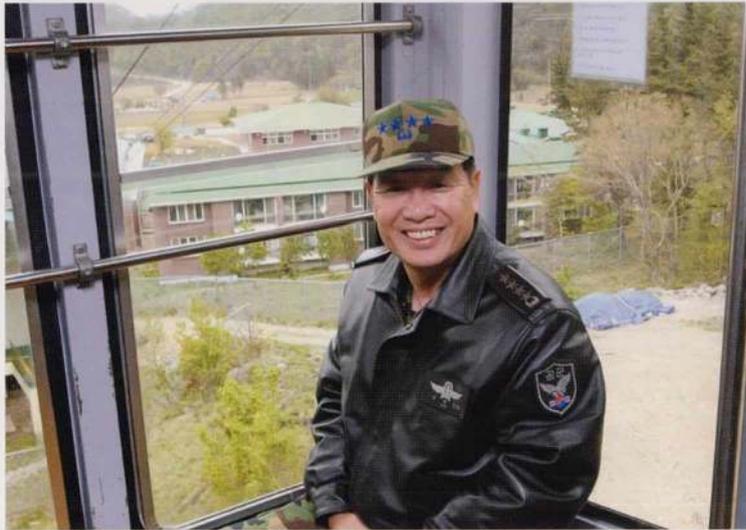
동맹군 임무



작년 9월, 자이툰 부대 방문을 위해 다이만 항공기에 탑승한 국방부장관님



파병 1주년 기념행사





1		
2	3	4

- 1, 2. 참모총장은 5월 2일, 우리 국토의 가장 동쪽에서 공중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울릉도 공군부대를 방문했다. 참모총장은 "장병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차게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울릉도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무완수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1」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참모총장 「사진 2」는 공군 부대를 순시하기 위해 케이블카에 탑승한 참모총장
3. 참모총장은 4월 25일, 다이만 부대 4진 2차 장병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4. '창조경영' 철학으로 웅진그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금 회장이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으로 5월 9일 공군본부를 방문했다. 윤 회장은 이날 공군 장병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아카데미' 강사로 초빙되었다.





1



3

4



2

- 1, 3. 국내 최대의 항공축제, 제28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가 5월 21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펼쳐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쟁쟁한 1,300여 명의 선수들은,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유·무선 동력항공기 등 각 종목에서 열띤 각축전을 벌였다. 한편, 박광현, 윤계상, 지성, 홍경인 등 연예병사도 총출동하여 대회의 흥을 돋웠다.
2. 작전사령관은 5월 16일, 제19전투비행단에서 지난 1월 27일 항공기 사고 이후 비행을 중지해 왔던 F-16 전투기에 직접 탑승하여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고 비행을 재개하는 첫 지휘비행을 가졌다.
4. 5월 9일, 3사 친선 행사의 일환으로 3군 사관생도 4학년생 87명이 제19전투비행단을 견학했다.
5. 5월 8일부터 19일까지 방공포병사령부 전 예하부대에서는 '유도탄부대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기지 피폭시 생존성 및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기지 이동 전개 훈련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5





6

6. 제3훈련비행단은 창단 기념일을 맞은 5월 11일, 부대 내 활주로를 개방하고 「제1회 민·군 활주로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단거리(4km)와 중거리(8km)로 나누어 총 2개 종목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지역주민과 장병을 포함한 총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9. 제8전투비행단 지원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 제38전투비행전대는 5월 17일, 기지내 공동주둔하고 있는 美 8전투비행단과 합동으로 해안가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자연정화 활동에는 38전대와 美 8전비 장병 각각 100여 명씩 총 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부대 인근 지역 해안가 4km 구간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했다.

9



10



7. 교육사령부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관 및 훈육요원 870여 명을 위한 '교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 5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은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례를 거행하였다. 성년의 의미와 민주 시민의 책임감을 배우기 위해 수원향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을 맞은 81 명의 10비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11. 5월 12일, 제10전투비행단은 조종사들의 근력 강화와 체력관리를 위해 경기도 보디빌딩협회 소속 회원 10명을 초청해 시범교육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현역 보디빌더 선수와 조교, 연구이사, 훈련이사 등이 참여해 조종사들에게 각종 시범을 펼쳐 보이며 올바른 기구 사용법과 근력강화 비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7



8



11

우주인 학교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

전투발전단 우주무기지원담당 중위 안 승 혁

올해 선발

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2명이 1년 동안 훈련받을 장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즈보즈니이 고로독이다. 일명 스타시티(Star City)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총 195명(2002년 기준)의 우주인(훈련은 27개국 379명)을 배출한 명문 우주 비행 훈련소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GCTC :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가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1960년 공군 총장의 지시로 우주인 훈련 센터(CTC : Cosmonaut Training Center)를 세웠으며, 1968년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공군 소령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따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센터장은 3번의 우주비행을 경험한 바 있는 공군 중장 Pyotr Klimuk이 맡고 있다.

가가린 우주인 훈련 센터는 지난 40여 년 간 최신 과학기술, 연구, 실험실 훈련과 비행 기지,

숙련된 전문가, 과학적인 우주인 훈련 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최근에는 예상 비용이 전체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인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에 필요한 우주인 양성을 미국의 존슨우주센터(Johnson Space Center)와 함께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훈련 시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2인이 교육받게 될 대표적인 훈련 시설 및 장비 운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중 무중력 훈련실'이 있다. 이는 수중 훈련 장비로(pool 지름 23m, 깊이 12m, 직경 23m) 미세·무중력을 체험하고 우주유영 및 우주과학 실험임무를 숙달 훈련한다. 궤도 정거장 외부 표면에서의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 에어락 입출입 조작 훈련 및 우주유영(EVA : Extra Vehicular Activity) 우주복 장비 착용 시 능숙한 작업 기술 실력을



수중 무중력 훈련



가속도 내성 훈련기



무중력과 우주 진공 체험 훈련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가속도 내성 훈련기'가 있다. 수직 5G, 배면 8G를 견뎌내야 우주선 탑승이 가능하다. TsF-18 원심분리기의 기술적 성능은 회전 반경이 18m이고, 회전시 무게는 300t 이상 되며, 최대 G-load는 30G, G 가속도는 최대 5G/s이다. 우주선 발사시 지구중력의 3~4배 되는 중력을 견디는 훈련으로, 교육생이 가장 꺼리는 훈련이기도 하다.

'무중력과 우주 진공 체험 훈련실'은, 숙련자는 IL-76 MDK 제트 실험실을 이용하여 1회 비행시 30초 무중력 체험을 총 15번씩 수행하며, 다목적 의학 연구와 실험에 이용된다.

'소유즈 우주선 시뮬레이터'도 있는데, 소유즈는 우주인을 우주로 수송하는 비행체로 다양한 시뮬레이터는 비행상의 모든 단계, 즉 궤도진입, 랑데부, 도킹, 궤도비행, 지구귀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제원은 크기 11m×7m, 최대 3인승용, 1회용(캡슐용)이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러시아 모듈 시뮬레이터'가 있다.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수행(ZARYA Functional Cargo Unit)과 주거생활(ZVEZDA Service Module)을 위한 훈련시설로, 현재는 통합 국제 우주인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 내용

센터의 주 기능은 모든 형태의 유인 우주 비행에 실제로 투입되는 우주인들의 훈련 교육이며, 우주 비행 조종사 이외에도 단기간

국제 과학 여행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환훈련

있다. 훈련 대상자는 주로 공군 파일럿 출신으로, 우주 과학 여행의 경우 과학자와 기술자도 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주 조종사가 되기 위한 평균 훈련 기간은 9~12년이며, 일부 우주여행은 6~12개월 훈련받는 경우도 있다. 인류최초의 우주관광객 티토(2001.4, 미국인)와 두 번째 우주관광객 샬트워스(2002.3, 남아공) 모두 가가린 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바 있다.

우주인 후보자들이 받게 될 훈련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주 비행체를 작동하고 통제하는 기술과 탑재체 및 우주선 내부 시스템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 우주에서 과학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는 훈련, 우주 비행시 비우호적인 요소에 대비하는 신체적 훈련으로 구분된다.

우선 경험 숙달로 복잡한 기기에 대한 신속한 작동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감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리적, 정신적 강화 훈련으로 '비행 훈련'이 있다. '생환 훈련'은 예상치 못한 바다 착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생존 및 응급조치 훈련으로, 산, 숲, 늪지대, 사막, 북극, 바다에서의 비상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그 밖에도 비상시 동료로 구하기 위한 훈련, 기기 고장시 수리하는 훈련,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훈련, 우주복을 입고 최고 86m 높이에서 낙하산 없이 강하하는 훈련 등을 받는다.

가가린 센터의 우주인 훈련은 우주인 선발, 일반 우주 비행 훈련 및 우주인 후보자 자격 부여, 우주인의료 검사, 과학기술 실험 연구 활동 참여 등을 포괄하며, 우주 임무 성공에 필수적인 세부 지식, 기술, 경험을

전반적으로 숙달하는 종합 교육의 일종이다.⊕



생의학 실험



공중 근무지에서 우주인까지

항공우주의료원 진료부장 중령(진) 임 정 구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용필의 본명이 조용필, 태진아의 본명이 조방현, 하리수의 본명이 이경은이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연예인이 이렇듯 자신의 본명을 두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름으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운명까지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거금을 들여 작명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국내 유일의 공중근무자 전문 병원

얼마 전 '항공의료원'이 '항공우주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군 병원의 모체이기도 한 항공우주의료원은 1949년 10월 1일 경기도 김포에서 창설되어 1991년 현재의 청원으로 이전하였으며, 1962년에 항공의료원, 1988년에 항공의학적성훈련원을 거쳐 1999년에 종합병원으로의 승격과 함께 항공의료원, 그리고 지난 4월 1일에는 항공우주의료원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되어 왔다.

4월 4일에는 참모차장 주관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인사운영단장, 국군군의학교장, 의무처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우주인 선발 위원장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국내 유일의 공중근무자 전문 병원인 항공우주의료원은 공중근무자의 진료와 신체검사, 항생 훈련, 그리고 항공우주의학 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년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의 업무에 추가로 우주인의 선발과 훈련, 우주 활동 중의 임무 개발, 지구로 귀환 후 신체 검사 등, 우주 임무가 추가로 부여된 것이다.

과거부 주관으로 2008년에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국내 최초 우주인을 보내는 사업에 항공우주의료원이 모든 신체검사를 전담하게 된 것은 50여 년 간 누적되어 온 공중근무자 건강관리 노하우를 국가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본격화된 우주인 선발 계획

2004년 1월 1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우주정거장은 201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우주왕복선은 우주탐사선(CEV)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우주개발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달 기지를 건설하고 2030년에는 유인 화성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금년 말까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세계 13번째로 우주센터가 건설될 계획이다. 외나로도 우주센터는 여의도의 3.5배 크기로 총 1백 50만평(시설부지 5만평)의 규모에 로켓조립동, 발사대, 추적장비, 우주체험관 및 박물관, 기타 지원설비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총 1,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국력을 신장하는 전략적인 효과도 갖게 되는 큰 의의가 있다.

2005년 11월부터 본격화된 우주인 선발 계획은 2006년 12월까지 우주인 후보 2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우주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키는 150cm에서 190cm, 몸무게는 50kg에서 95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한다면 유리하고 범죄자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과정은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에서는 3.5km 마라톤을 통해 기초 체력을 측정하고 필기시험으로 상식과 영어를 평가하여 5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하여 300명을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정신 심리검사, 심층체력검사, 임무수행 능력 측정을 통해 30명을 선발한다. 3단계에서는 정밀 신체검사, 우주 적성검사와 상황대처능력 등의 검사를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최종 4단계에서는 러시아 의료진에 의한 의학검사, 사회 적합성 검사 후 2명을 선발하고, 이 2명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15개월 간의 훈련을 마치고 최종 1명이 한국 최초 우주인이 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는 우주선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선장(commander)과 선장을 보좌하여 왕복선을 조종하는 기장(pilot), 선장이나 기장을 도와서 왕복선의 각 시스템을 운용하고 인공위성의 궤도 투입이나 횡수 등을 파악하고 임무에 따라서 선외활동(EVA)도 하는 운용기술승무원(mission specialist)이 있다. 그리고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 이외의 탑승원이자 특정 임무에 대한 전문가인 과학기술승무원(payload specialist)도 있다. 과학기술승무원은 우주에서의 작업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선발된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은 과학기술승무원에 해당되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신체검사 및 우주적성 검사(가속도, 저압실 체험 등)를 담당하게 된다.

국내 최초의 우주인 신체검사를 담당하게 된 항공우주의료원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선발 과정의 준비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 중에 축적되는 많은 의학적 자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유인우주 비행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4월 4일 참모차장, 인사운영단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우주인 선발 위원회 추진위원장 김두환 교수 등을 모신 가운데 거행된 항공우주의료원 현판식

독일과 소련의 위험한 동거



히틀러 총통은 소련과 영구적으로 불가침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소련 영내를 쾌속질주하는 독일군 전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우표. Dekanozov(데카노조프) 대사의 “독일은 소련연방을 공격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인상 깊다.

군역사기록관리단 대위 김만식

1939년 독일과 소련 양국은 폴란드를 절반씩 사이 좋게 나눠 갖기로 하고 각자의 세력권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한다. 이것이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일방국은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으며, 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접촉하고, 쌍방 모두가 일방을 직간접의 적으로 삼는 국가집단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상호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 덕분에 독·소 양국은 1939년 후반기부터 1941년 6월 초까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으나 애초 히틀러는 소련과 영구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이어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인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게르만 민족이 지속적으로 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하자원과 광대한 영토(특히 남부지역의 비옥한 토지)를 가진 소련지역이 Lebensraum(Living Space)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이야기했었다. 더군다나 그가 신봉하는 나치즘은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었다. 히틀러는 ‘바바로사’(Barbarossa)라고 명명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소련 침공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반면 눈치 빠른 소련 역시 독일과의 불안한 동거가 오래가지 못 할 것임을 직감하고 1940년 초부터 ‘스탈린 라인’을 구축하여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고자 했다. 이 방어선은 국경을 따라 페이푸스호 남쪽에서 제바쉬까지 뻗어 있었다.

독일군의 바바로사(Barbarossa) 작전과 소련 침공

히틀러는 소련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계획 ‘바바로사’(Barbarossa)를 1940년 12월, 총통령 21호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일군은 소련 침공을 위해 북부집단군(Heeresgruppe Nord), 중앙집단군(Heeresgruppe Mitte), 남부집단군(Heeresgruppe Sud) 등 총 3개의 집단군을 편성하였다. 여기에는 루마니아군과 핀란드군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겨울전쟁(소련의 핀란드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4개월 동안에 걸쳐 계속된 전쟁의 결과로 핀란드는 소련에게 국토의 15%를 내주고, 철광석과 구리를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을 수탈당하게 되었다)의 원한

을 잊지 못하고 북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독일과 손을 잡았고 바바로사 작전을 위해 15개 사단을 동원하였다.

이들 3개의 집단군은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우선 북부집단군(2개 군단과 1개의 전차집단군으로 구성)은 발트해 연안의 소련군을 격퇴하고 해안을 확보한 후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고, 중앙집단군(2개의 군단과 2개의 전차집단군으로 구성)은 스몰렌스크를 확보한 다음 모스크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다. 남부집단군(2개의 군단과 1개의 전차집단군으로 구성)은 키예프를 점령한 다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도네츠크강의 공단지역을 접수할 계획이었다.

1941년 6월 22일을 기해 독일군은 3백만 명의 병력과 4천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소련 영내로 진격하기 시작했다(공교롭게도 이 날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제정 러시아 점령을 위해 국경을 넘었던 날짜와 동일하다). 독일군의 기습을 당한 소련군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다년간에 걸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신출귀몰하는 독일군 전차부대의 활약상은 소련군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구데리안과 만슈타인 장군이 중심이 된 독일군 전차부대는 개전 4일이 지난 시점에는 소련 영내로 320km를 전진해 들어갔으며, 개전 25일 후에는 650km를 전진해 들어가 모스크바까지 불과 300km 정도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처럼 독일군 전차부대가 쾌속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동안 각지에서 포위된 소련군은 독일군 보병부대에 의해 철저히 괴멸당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우크라이나에서만 66만여 명의 소련군 포로와 3천8백여 문의 화포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독일군의 계속된 승전보에 금방이라도 소련은 독일의 점령지가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핀란드를 침공한 소련군처럼 초기에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을 기다리고 있는 복병이 있었다. 바로 엄청나게 혹독하기로 유명한 소련의 동장군(冬將軍), 추위였다. ❄️



바바로사 작전의 개요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도



소련 영내에서 작전 중인 독일군 병사

5전비 족구 동아리를 찾아...



제5전술공수비행단 중위 허 호 영

일과 후 활주로 끝에서부터 시작된 붉은 노을이 비행단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시각. 고요함 속에 '탕! 탕!' 공치는 소리가 명쾌하게 울려 퍼진다. "마이 볼~"을 외치는 힘찬 장병들의 목소리도 간간이 들려온다.

해성 족구회의 탄생

제5전술공수비행단에 족구 동아리가 생긴 것은 2003년. 오래 전부터 비행단에서 족구를 즐기는 장병들은 많았지만 그냥 즐기는 운동으로만 생각하고 동아리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었던 탓에 동아리 탄생이 늦어졌다. 부대 밖에서 족구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던 아전정비대대 윤순복 상사는 마음맞는 장병들 몇몇을 모아 족구 동아리를 창단했다.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하다가 5비의 다른 이름인 '해성대'를 따서 '해성 족구회'라 명명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10명 남짓이었던 회원이 지금은 30명이 넘었다. 족구의 고수, 귀신들만 모였으니 그 실력 또한 막강했다. 그러나 족구는 팀워크를 요구하는 스포츠. 동아리 회원들은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 일과 후, 점심 시간할 것 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동아리는 아니더라도 부대 내에는 막강한 실력을 가진 팀들이 많이 있었다. 같은 대대 소속으로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도 많았지만 해성 족구회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서서히 비행단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각종 대회에도 참석하여 그 실력을 뽐내 명실공히 부산 최고의 족구 지존으로 자리매김했다.

족구의 기원은 어디?

쉬운 경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

는 족구. 그런데 족구가 공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족구는 지난 1968년 5월, 대구에 근무하던 조종사 정덕진 대위, 안택순 중위가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간편하게 조종복을 입은 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착안한 것이 그 시초라고 전해진다. 이후 족구는 해군·육군으로 급속히 퍼졌고,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직장인, 대학생 등 700만 명의 족구인이 생겼을 정도다. 작은 공간에 네트 그리고 공 한 개만 있으면 여러 명의 장병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족구는 이제 군 생활의 일부이다.

경남 최고의 코킥 스트라이커

족구는 전략·전술을 위한 두뇌 플레이, 신속한 판단력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후려차기, 돌려차기, 비틀어차기, 밀어차기, 누아차기, 찍어차기, 감아차기, 바깥차기, 공중돌려차기, 가위차기 등 족구 고수들의 현란한 발놀림은 주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하다.

5비팀의 막강한 스트라이커는 무장정비대대 김중성 상사. 그의 주특기는 코킥이다. 찍어차기의 일환인 이 발놀림은 공을 발의 앞꿈치로 공격하는 것으로 상대편 코트에 공이 떨어지면 바닥에 깔리듯 미끌어져 상대편 수비수가 발로 막아낼 수 없는 강력한 공격이다. 또한, 미끌어지는 공을 띄운다고 해도 코트 밖으로 떨어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없는 김 상사의 코킥은 명실공히 경남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승리에 배고프다

해성 족구회에게 누구도 실력이 부족하기에 좀더 연습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족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끊임없이 훈련하여 그동안 많은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었다. 물론 처음부터 1등만 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출전한 강서구청배 족구대회에서는 3위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포기할 해성 족구회가 아니었다. 그 해에 열린 김해족구연합회장기 대회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고,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천천히 그 입지를 넓여가고 있다.

가장 최근 참가한 대회는 3월 19일 부산 명지 중앙공원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부산시 롯데캐슬배 직장인 족구대회'. 해성 족구회는 이 대회에서 128개 팀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을 차지했다. A, B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출전해 16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결국 끝까지 남은 1팀이 결승까지 진출해 우승컵을 안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해성 족구회 감독을 맡고 있는 화생방지원대 최학조 원사는 "군인정신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었고, 군인다운 정신력이 우승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며, 아직까지 전국 최강 족구팀은 아니지만 정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주말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족구를 즐긴다고 하면 가족들이 심심하겠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걱정없습니다. 족구대회 출전하는 날이

면 가족 모두 도시락 싸들고 응원을 오거든요. 가족만한 응원객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가족도 족구 마니아입니다."

아전정비대대 이학명 원사의 가족은 족구 대회가 있는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나와 열심히 응원전을 펼친다. 이렇게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이들과 아내의 응원에 또다시 힘이 솟기에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대회를 위해 연습할 수 있었다.

응원 점수도 100점!

응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제256비행대대 소속의 정배근 중사. 물론 그의 족구 실력도 남다르지만 후보로 빠지는 날에는 응원단장이 되어 화려한 응원전을 펼친다. 군인다운 패기와 힘이 실린 그의 목소리에 상대팀은 혼이 빠져버리곤 하지만 공군팀에게는 그보다 더 힘이 되는 소리는 없다. 응원 온 다른 공군팀 가족들도 그의 목소리에 배꼽이 빠져라 웃다가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 응원을 하기도 한다.

해성 족구회원들은 공군인들에게 외친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다들 본인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몸에 맞는 스포츠 한 가지씩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족구를 배우고 싶다면 해성 족구회를 방문하세요."

그들의 구슬땀 속에서 진한 전우애가 느껴진다. 날이 어두워져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해 실력을 쌓아가는 해성 족구회 회원들의 노력은 '전국 최강'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두 가마를 버린 어머니



구성 : 김영신
그림 : 김영은



조선시대 숙종 때의 학자 김항성.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삼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두 아들은 좋은 선생님께 보내어 공부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처마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방울이 달린 곳에서 소그릇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잦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속에는 하얀 은이 가득 찬 큰 가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은이라면 가난한 살림에 당분간 식량 걱정, 자식들 학비 걱정을 없애 줄 수 있는 큰 보화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그 가마를 흙으로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동이 트자마자 친척에게 부탁하여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두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뒷바라지로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학문을 인정받았습니다. 큰 벼슬에 오른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어머니는 지난 날 묻어두고 떠났던 은 가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유없이 큰돈을 얻으면 반드시 의외의 재앙이 있고, 어려서부터 편안하게 되면 너희들이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을 게다. 돈을 낭비하는 습관만 생기고 마음이 점점 게을러져 쓸모 없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이를 버리는 것이 화를 떠나는 일인 줄 알아 은가마를 묻어두고 기꺼이 가난한 길을 택했었다"



외계인과 지구 소년들의 만남

외화번역가 **이 미 도**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지은이

공상과학의 한계에 도전하다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Allan Spielberg) 감독의 가장 큰 꿈은 '언젠가는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경험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꿈이 현실적으로는 아직 미실현 단계라고 하더라도 24년 전인 1982년, <E.T.>를 창조함으로써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평생의 꿈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동심의 마음으로 느끼고, 동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조우할 수 없는 외계인과의 만남! 그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그려기에 <E.T.>는 과학적,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공상과학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계인, 지구인과 교감하다

외계(outer space)의 미확인비행물체(UFO : 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지구의 어느 한적한 숲에 착륙합니다. 우주선에서 내린 외계인(alien) 식물학자들은 각종 표본을 채집하던 중 지구인 정찰대가 나타나자 황급히 지구를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뒤쳐진 외계인이 홀로 외계의 별, 지구에 남게 됩니다.

어느 집의 뜰 안에까지 숨어 들어온 외계인은 꼬마 주인공인 엘리엇(Elliott)의 눈에 띄게 되는데, 엘리엇은 외계인에게 E.T.(Extra-Terrestrial)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구 밖 생명체 또는 외계인이란 뜻이지요. 둘 사이에는 서서히 특별한 우정이 싹 트고 엘리엇의

형제들인 마이클, 거티(드류 배리모어)와도 가까워집니다. 특히 엘리엇과는 텔레파시로 교감할 만큼 친밀해지는데, E.T.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발견해서 들이키면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엘리엇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정도입니다.

죽은 외계인을 깨어나게 한 기적의 눈물

한편 지구 수색대의 추적이 집요해지면서 E.T.는 300만 광년이나 떨어진 자신의 별로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엘리엇의 도움으로 통신장비를 급조한 E.T.는 가까스로 외계별과 교신에 성공하지만 체력을 급격하게 소모해버린 탓에 그만 탈진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와 특별하게 연결돼 있는 엘리엇 또한 아파서 쓰러져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엘리엇 형제의 싱글 맘과 항공우주국 과학자 그리고 군인들이 들이닥치는데... 과학자들은 온갖 검사 장비를 총동원하여 E.T.의 건강을 되살려보려 하지만 E.T.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자 E.T.와의 생체리듬이 분리되면서 엘리엇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E.T.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엘리엇의 눈물이 기적을 일으킨 것인지 E.T.가 깨어나고, 아이들은 E.T.를 자전거에 태워 어른들 모르게 숲으로 도망칩니다. E.T.의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던 외계인들과 E.T.는 아이들의 눈물의 배움을 받으며 지구를 떠납니다.



46 월간공군



종교적 신화에 대한 오마주(homage)

엘리엇(Elliott)이 외계인에게 E.T.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엘리엇과 E.T.의 사이에는 운명적인 교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lliott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E와 T, 즉 ET이니까요.

또한 〈E.T.〉에는 종교적 신화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헛간 같은 곳에서 발견된 E.T.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He heals the sick.), 기적을 행하고(He performs miracles.), 죽습니다(He dies.). 그런 다음, 부활하여(He resurrected.) 승천합니다(He ascends.). 광채를 빛내는 E.T.의 손가락 끝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린 '아담의 창조'(God Creating Adam)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어머니 이름은 성모마리아(the Virgin Mary)를 딴 메리(Mary)인 것까지 모두 종교적 신화에 대한 오마주(homage: 경배)인 것이지요.

아이들과 E.T.가 자동차로 추격해오는 어른들을 따돌리고 보름달이 떠있는 창공으로 날아가는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멋진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건 마치 하늘을 나는 피터 팬(Peter Pan)이나 스티브 맥퀸이 자유를 찾아 오토바이로 철조망을 뛰어넘는 〈대탈주·The Great Escape〉, 〈E.T.〉보다 훨씬 뒤에 제작된 영화이긴 해도 두 여주인공이 억압 없는 세상과 영원한 자유를 갈구하며 차를 탄 채 창공으로 비상하는 〈텔마와 루이스·Thelma and Louise〉의 명장면을 연상하게 할 것입니다.

제작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

〈E.T.〉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시원한 이마와 동그랗고 큰 눈을 가진 E.T.의 얼굴은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Carl Sandburg) 그리고 불독을 닮은 퍼그(pug dog)를 본 딴 것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두뇌와 시인의 감성과 애완동물의 이미지를 합성한 것이지요.

영화에 보면 E.T.를 데려가기 위해 아이들이 조그맣고 동그란 초콜릿을 바닥에 놓아주면서 길 안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제작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m&m's 초콜릿 회사와 프로모션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m&m's는 외계인이 초콜릿을 먹는다는 설정이 말이 나 되겠냐며 단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작회사는 무명의 한 초콜릿 회사와 접촉했고 그 회사의 초콜릿 매출은 대박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Cool

쿨하지 말자

방송작가 모은 설

*배우자가 바람나도 징징대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찾아 떠나는 여자
마음에 둔 상대방이 딴 남자에게 정신 팔아도 원한 품지 않고 척척 도와주는 남자
서로 이혼한 뒤에도 연애했듯이 만나 쿨하게 만남을 유지하는 남녀!*

요즘 우리 사회는 '쿨한 사람들', '쿨한 관계'가 유행이다. 쿨(cool)이라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용어가 새삼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드라마는 물론, 광고, 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의 옷차림새에서도 '쿨하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가 되었다. 일상에 찌들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각박한 현실을 박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경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쿨하다'는 말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들 사이를 이리도 술렁거리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쿨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 '쿨하다'라는 말은 멋지다, 또는 세련되다 정도의 의미로 들렸던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쿨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성향을 관찰해보면 쿨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 '뒤끝없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친절하되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라는 환상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쿨하다'라는 말은 그저 자기 방패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 되어 버렸다. 도덕적인 책임은 뒷전이 되거나, 깊은 감정을 두려워해서 단지 한발만 담갔다가 슬쩍 빼면서 내뱉는 말이 바로 '쿨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쿨하다'라는 소리가 싫다. 모든 사람들이 쿨하다는 말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반면, 나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주는 획일적인 느낌이 싫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게 작은 일에 연연하고, 감정정리 어렵고, 당연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백 번씩 튀어 오르고 가라앉는 게 마땅한데, 그걸 가지고 쿨하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다니...

뭐든 그렇게 쉽게 버리고 쉽게 잊고 쉽게 떨쳐낸다면 그 사람이 버리고 잊고 떨쳐낸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단 말인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다. 하물며 자신이 그렇게 쉽게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남이 자신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뒷맛이 씁쓸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추억이나 기억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솔직히 정주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추억이나 기억을 너무 질질 끄는 것도 짜증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더 짜증난다.



정말로 쿨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진실로 쿨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면 노력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차였다면 매달리고,

좋아한다면 표현하고,

행복하면 웃어주고…

감정은 구질구질해야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구질구질한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쿨한 것이다.

난…

미련하고, 속좁고, 생각 많고, 뒷일을 무수하게 걱정하는…

절대로 '쿨'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싶지도 않고…

적어도 난, '쿨하다'는 방패를 들진 않겠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난 쿨하다기보다는 뜨겁고 싶다.

다들 쿨하게 사는 요즘,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꾸 멋지게 보인다. 뜨거운 가슴, 열정, 젊음. 돈이 없어도, 번듯한 직장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이 언제나 쿨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나는

진짜 쿨한 게 뭔 줄 알아?

진짜 쿨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쿨한 거야.

좋아서 죽네 사네 한 남자가 나 싫다고 하는데 오케이 됐어, 한방에 그러는 거 쿨한 거 아니다.

미친 거지.

詩와 함께한 제주도의 푸른 바다

제3방공포병여단 중위 홍창욱

■ 스트레스가 산산히 부서지는 주상절리

연간 수백 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제주. 제주는 국내 최고의 휴양지임에 틀림없다. 해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코발트빛 바다, 눈을 감으면 피로가 함께 흘러나갈 듯한 파도, '보이는 것은 산이 아니야/그저 솟아있는 땅일 뿐' (권경업 作 「오름 앞에」)인 오름, 걸쭉한 몸국의 든든함과 자리돛젓갈의 감칠맛 등. 어머니의 환갑을 앞둔 가족여행을 다른 곳으로 선택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제주도는 볼 것이 너무 많다. 연령, 시간, 취향에 따라 코스와 일정이 다를 것이기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짧은 경험으로 너스레를 떨기에는 민망한 일. 그저 가족여행기로 가볍게 읽어주길 바랄 뿐이다. 며칠을 뒤져 만든 詩수첩을 들고 비행기에 타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발을 친다.

포근한 제주의 푸른 밤

제주공항에서 차를 대여한 후 첫 관문인 용두암으로 향했다. 용두암은 그저 볼 것이 용머리뿐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교복 차림의 여고생, 첫 코스부터 해삼과 맑은 소주의 유혹에 빠져 내달리는 시골 할아버지, 간간이 보이는 커플들. 용두암에서 제주를 느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탑동의 음식점에 들러 모듬회와 고등어구이서비스까지 푸짐하게 먹고 인근 사라봉으로 향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바닷가로 내달리며 물장구를 치는/사이좋은 오누이 같은 사라봉과 별도봉' (김태일 作 「제주의 해거름」)에서의 낙조는 날씨가 흐려 볼 수 없었다. 아쉬움에 공항인근의 해안도로를 타고 밤바다를 보러 갔다. 멀리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보이고 갯내음이 전하게 바람에 날려오는 것이 틀림없는 '제주의 푸른 밤'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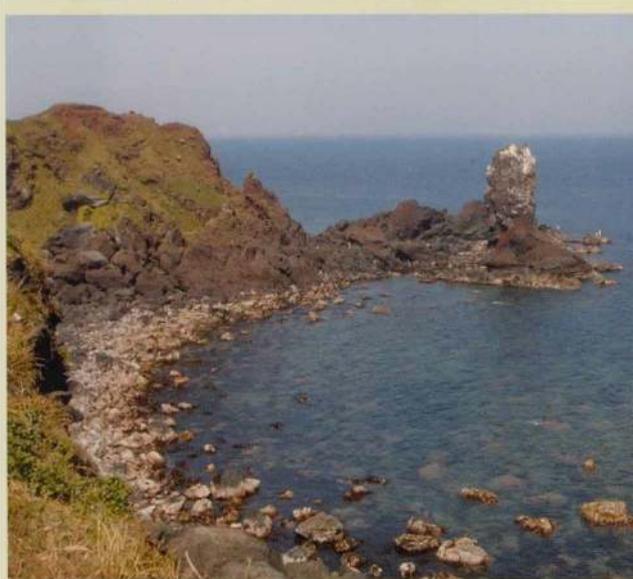
어떤 이는 '제주바다는 이리저리 불안을 뒤척이고' (문충성 作 「동백꽃」), '파도는 잠들지 못하고 하얗게 운다' (김석교 作 「旅路」)며, '내 어찌 이 멀고 먼 유배의 땅에 와서/어둡게 어둡게 너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김선태 作 「제주비가 2」)라고 한탄을 늘어놓지만 첫

여행인 나에게게는 '아름다운 여자를 잉태한 젊은 어머니의 해변' (고은 作 「제주의 D단조」)과 같이 포근하고 따스했다.

城山, 너를 잊지 않오마

첫날을 온돌방에서 보낸 후 토속음식인 몸국으로 속을 든든히 하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동쪽으로 한참을 달려 함덕 해수욕장을 지나는 해안길은 유채꽃이 아직 남아있었다. 동북 해안가는 현대사의 아픔인 4·3사건의 주요한 배경이기에 시와 소설에 자주 등장한다. 인근에 위치한 만장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만장굴은 생명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피난지였다는 점 또한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엇이 씩어서 이 곳에 꽃 한송이를 피우는가 생각' (도중환 作 「제주바다」)해 볼 일이다. 만장굴은 코스 중에서 관광객이 제일 적었다. 눈을 만족시키는 볼거리는 없었지만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넓은 용암동굴을 따라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나누는 가족간의 대화는 쓸쓸한 재미가 있었다.

드디어 성산으로 간다. 城山, 가기도 전에 약간은 흥분이 되었다. 성산을 향해 던지는 시인들의 추파가



■ 좁은 곳을 의미하는 섬지코지. 곳의 끝에 있는 촛대바위의 하안 부분은 새의 분비물이다.



- 산방산 입구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관음보살상
- 해안의 끝에 자리한 성산, 섬이었으나 퇴적물이 쌓여 현재는 이어져 있다.
- 산방굴사의 하루방 옆에서 바라본 남쪽바다

너무나 낮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리운 성산포여/우리, 저 세상에 가서도/바다에 가서 살자' (권태원 作 「제주도 성산포」)라는 구애형, '그리 붉게 솟아/오른/음험한 대지의 옥정/차암/아름답도다' (강금중 作 「성산포」)라는 칭찬형, 심지어 '술은 내가 마시는데/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이생진 作 「술에 취한 바다」)라는 대작형까지... 세화에서 성산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타고 가며 첫째는 백가지 옥빛에 놀라고, 해안가에 길다랗게 드러누워 너무도 여유로운 자태를 뽐내는 황소(우도)를 보며 두 번 놀라고, 마침내는 딱하니 하늘 향한 기개를 자랑하는 성산을 보고 놀랐다.

성산 중턱에 올라 바라보면 앞의 오름과 하구, 오른쪽의 우도와 깎아지른 절벽, 왼쪽의 완만한 모래사장구 유채밭, 등 뒤 성산의 하늘 향한 돌기까지. 황홀경이라 시인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바다를 안은 대지/검은 수풀에 드러누운 물살/안개는 수줍은 오름을 감추면/멀리서 물어오는 태고적 그리움/이어도 향해 몸을 던진 황소는/옥빛 파도의 자장가에/게으른 잠 빠져들고/메마른 절벽은 바람에 시러 갈대옷을 입었다//바다와 하늘의 부푼 마주침엔 물보라가 인다'

'성산아! 다시 오마'를 기약하며 향한 섬지코지는 드라마 촬영지라 단체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 사진 찍느라 놓쳐버릴 수 있는 비경은 바로 섬지코지에서의 성산과 우도 풍경이다. 성산에서는 보기 힘든 오른쪽 측면과 나란히 서있는 우도의 머리부분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불거리 때문에 점심시간을 훨씬 넘겨 배가 출출해진 우리 가족은 성읍 민속마을로 달려갔다. 고사리철이라 어머니는 산길 가는 내내 고사리타령을 하신다. 여기저기 이름없지만 사연 많은 풀이 뒤덮고 있는 '5월 제주, 제주의 초록빛은 원시적이다' (김나영 作 「제주·원시공화국」). 얼마간 달려 도착한 민속촌에서 푸짐하고 걸쭉한 팽 칼국수에 넉넉한 인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을 오가며 보게 되는 산담, 울담, 밭담. '어디서나 들은 한데 얽혀 튼실한 담을 이루고/사람들은 서로의 가난한 마음 끌어안고 살아가는' (한승수 作 「제주도의 돌」) 그 파스함과 굳건한 생활력이 가슴에 와닿았다.

먼 길을 달려 도착한 리조트에서 가벼운 짐을 풀었다. 6시가 지나면 어두워져 대부분의 관광지가 문을 닫지만 서귀포의 천지연은 출입이 가능했다. 밤이라 주위의 식물군락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한없이 물을 쏟아내는 폭포를 오붓하게 감상하는 것도 운치가 있었다. 나오는 길에 '천지호'를 보고 설명을 읽던 중 이 배로 일본탐사를 한 이가 채바다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에서는/바람을 술잔처럼 따라 마시고/흰 울음으로 밀려오는 파도는/내 인생의 소설처럼 읽는다'는 시인의 호탕함에 가히 어울리는 행적이라. 오랜만에 벗을 만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산방굴 불전에 합장하고

이제 여행도 막바지에 다달아 중문과 대정, 그리고 서쪽지역을 구경할 차례다. 어제

일정이 팍팍했는지 늦게 일어나 서둘러 아침을 먹었다. 메뉴는 담백하고 시원한 맛의 보말국. '주상절리로 가는/가파르고도 높다랗게 펼쳐진/해안 절벽에는//바람에 파랑게 젖어 연신 몸을 떨어대는/해송들의 군락이 남실댄다' (손정모 作「제주해안」).

심한 바람과 난대성 식물 군락지인 중문일대는 볼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붐비지만 있는 그대로의 제주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제주여행을 3번 왔지만 돌고래 공연관람과 식물원 사진촬영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김빠진 단체관광을 하며 싸구려 상품을 소비했으리라. 주상절리는 검은 현무암 육각기둥이 층층이 이룬데다 부서질 듯 때리는 파도가 말 그대로 볼 만했다. 미련없이 중문을 떠나 찾아간 곳은 한라산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산방산. 산 중간쯤의 굴 안에 위치한 산방굴사에 오르면 어머니가 불전에 놓으라고 천 원을 주신다. 합장하고 내려오니 용머리 해안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기암이 춤을 추듯이 끝없이 이어진 용머리는 가족들끼리 해안가를 걷기에 좋아 마치 봄소풍을 나온 듯 했다.

인근 대정읍의 밀냉면집에서 뜨끈한 수육을 곁들여 냉면을 맛있게 먹은 후 일제가 침략의 발판으로 건설했다던 알뜨르 비행장터에 잠시 차를 대었다. 흙에 반쯤은 파묻힌 격납고에는 세월의 무상함이 묻어났고, 그 너머로는 봄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제주로 향하는 마지막 경유지는 언덕마다 펼쳐진 푸른 초원이 넘실거리는 서광다원이다. 초원을 따서 맛을 보니 씹스름한 것이 여행의 묘미를 더했고 언덕 위의 초원의 집과 같은 녹차 박물관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관광객들이 즐비했다.

날 내부령 가지 막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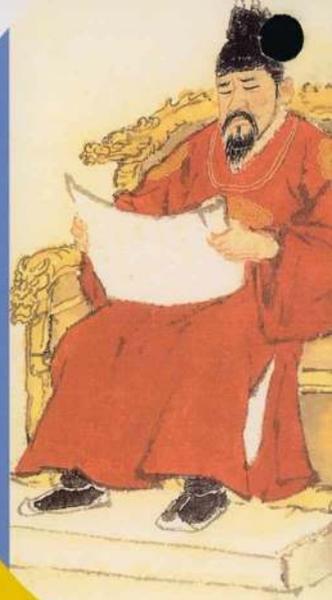
돌아오며 여행내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라산에 대한 짝사랑으로 가슴이 내내 두근거렸지만, 여독에 지친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울까봐 산아래 절이나 둘러보려고 했다. 1117도로를 타고 가는 길에 흠쳐본 한라산은 여러 개의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천왕사에 둘러 약수를 들이키고 내려올 때는 제주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 긴 여정에서 떠날 일만 남으니 모든 것이 나를 잡는 듯 아쉽기만 했다. '가지 막서 가지 막서 게/날 내부령 가지 막서//살아도 한배 타곡/죽어도 한배 타야주/날 내부령 가젠 햄수 광' (김희철 作「제주아리랑」). 아쉬움이 크지만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여행의 참맛 아닐는지. 🍀

- 용머리 해안의 기암. 널찍한 현무암 해변이 걷기에 좋다.
- 만장굴 공원으로 소풍 온 유치원생들. 제주의 사진촬영은 나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 해변 관광지 어딜가나 잠녀들이 많은 소주와 해산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세화에서 성산으로 가는 해안도로의 어느 이름없는 해변. 수백의 옥빛이 반짝인다.



홍길동전

군사법원 법무관 대위(진) 김 정 태



“ 소인이 평생 설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 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

- 허균 作 『홍길동전』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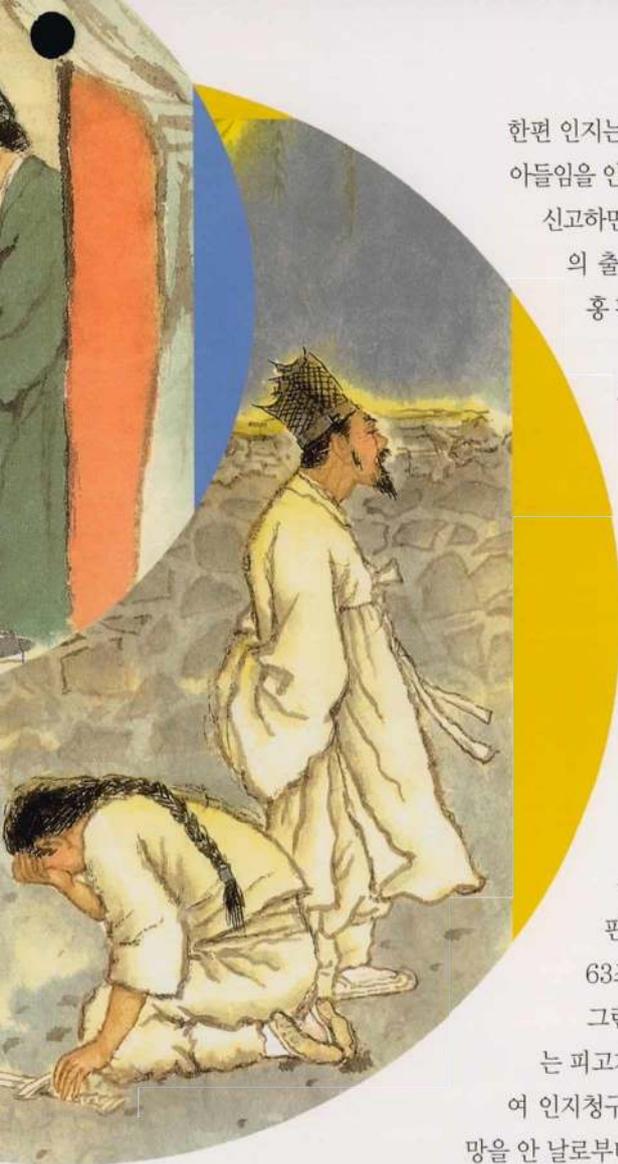
의문 1.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

홍길동은 생부인 홍 판서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률상 아들이미 확정되어 홍 판서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생부와 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 - 인지제도

우리 민법은 생모와 그 자식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당연히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생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어머니임이 드러나는 데 반해, 생부는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닐 경우(법률용어로는 '혼인 외의 자(子)') 누가 생부인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생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부자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인지(認知)'이다. 인지란, 생부가 그 자식을 '이 사람을 나의 자식으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부자(父子)의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인지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그 사실을 구청 등에 신고하면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59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 제1항).



한편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홍 판서가 유언으로 길동이 아들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59조 제2항). 그리고 그 효력은 길동의 출생 시까지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길동이 태어날 때부터 홍 판서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홍 판서가 인지하지 않을 경우의 방법

홍 판서가 인지를 스스로 해 준다면 가장 쉬운 해결책이 되겠지만, 적서차별이 엄연했던 문화에서 서자인 길동을 인지하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부가 스스로 인지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민법 제863조는 '자(子)와 그 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부(父) 또는 모(母)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홍 판서의 아들인 길동은 아버지인 홍 판서를 상대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구청 등에 신고하면 된다(호적법 제63조).

그런데 만약 홍 판서가 사망한 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피고가 되어야 할 홍 판서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민법 제864조). 다만 이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인지를 받아 신고를 하거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홍 판서와 부자관계에 있음을 법적으로 확정할 방법은 없게 된다.

의문 2. 서자인 홍길동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홍길동이 인지를 통해 홍 판서의 자식으로 인정받아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설움을 씻을 수 있었을 때, 상속에 있어서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홍길동은 홍 판서의 정당한 상속인으로, 홍 판서의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인지와 상속

홍길동은 홍 판서의 첩의 아들로 혼인 외의 자(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는 절차인 인지를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고 당연히 상속권도 없다. 하지만 흥 판서가 자식으로 인정하거나(인지), 길동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길동은 법적으로 흥 판서의 아들이 되고, 흥 판서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길동도 정당한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길동이 살았던 시기인 조선 세종 때에는 「경국대전」에서 '서자는 천인(賤人) 여자 첩의 소생일 경우 적자의 1/10에 해당하는 재산만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흥 판서의 시비(侍婢)였던 춘섬의 소생인 길동은 상속분에 관해서도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민법은 혼인 외의 자(子)라고 하여 혼인 중의 자(子)에 비해 상속과 관련하여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흥 판서의 정실 부인이 길동이나 다른 자식들보다 1.5배 더 많이 상속받는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흥 판서의 사망 후 자식으로 인정받은 경우

현재 민법상 길동이 흥 판서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인정받은 시점부터 흥 판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동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법률용어로 '소급효', 민법 제860조). 따라서 이미 흥 판서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길동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다른 공동상속인(흥 판서의 정실 처와 그 적자들)들이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갖거나 처분하기 전이라면 길동도 정당한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의 분할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 12 판결).

만약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이미 처분해버려서 상속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 때에는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길동이 받았어야 할 상속분만큼의 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다만 이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흥 판서가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해버린 경우

흥길동전에서 흥 판서는 길동에게 호부호형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객을 보내 길동을 제거하려고 까지 했다. 그러한 흥 판서에게 만약 길동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화가 난 흥 판서가 자신의 재산을 길동에게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정실 처나 적자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주어버릴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흥 판서가 다른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길동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특별한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일부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따라서 길동은 재산을 미리 받은 자식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재산을 다른 자식에게 주어버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 그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 이 달의 법언(法諺)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Ubi jus, ibi remedium)

사랑하는 아들 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정수열(군수사령부 상병 정원우 부친)

기분 좋은 날은 모든 것이 좋게 변하는 것일까? 변덕스러운 봄 날씨도 부모 초청행사를 하는 오늘날은 예외인 것 같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대체로 '비행기'라 하면 조금은 멀찌감치 물러서서 바라보거나 그저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그렇지만 너희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물 로켓과 모형 항공기 등의 체험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행을, 비행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라 할 수 있다. 네가 공군으로 입대한 것도 어릴 때의 막연한 동경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확실히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공군이 너희 세대에는 아주 가깝게 다가감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서는 멀리서 바라만 보았고 접근이 쉽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공군기지를 들어설 때에는 다소 긴장이 되기도 했다.

군 시설물보다도 가장 궁금했던 곳은 역시 우리 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생활관, 식당 등의 여러 가지 시설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 않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군 장병들은 혈기왕성한 이십대 청년이고 이들의 사고가 너무 다양하기에 조화롭게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

지만, 이 정도의 생활 여건이라면 분명 만족할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생활하는 곳을 보고 오니,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군 생활도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고, 자신의 삶에 중요한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기에 군에서의 생활을 자신의 내면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대하고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은 이미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아들아, 우리가 살면서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해' 등, '다음'이라는 단어로 자신에게 많은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생활하는 이 순간과 똑같은 '다음'은 없다. 지금의 자세가 그대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바란다.

오늘 행사를 통해 아버지는 공군을 이해할 수 있었고, 군의 담당자들이 부모만큼 자상하게 우리 자식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음을 실감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되기를 빌며, 우리 아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렴. ✎





T-50과 정보통신병과의 만남

제52시험평가전대 상사 권기영

제52시험평가전대와 내가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 1월 31일이다. 52전대에 오기 전 레이더 기지에서 전산 장비 정비를 담당했던 나는 전입 당시 '계측지원대'가 어떤 임무를 하는 곳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다.

52전대 계측지원대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계측 장비 정비관리였다.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장비인 'Telemetry Ground System' (비행 시험 지상계측장비)은 개발항공기 각 부위에 장착된 센서들에서 측정되어진 물리량들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된 자료들을 각 계통별 엔지니어와 시험 통제관 (Test Conductor)에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와 모양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만약 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시험비행을 중단해야 하는, 항공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장비이다.

새 부대, 생소한 장비

이제 막 창설된 부대에서 군에 처음 도입되는 계측 장비와 친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다. 보임 바로 다음날부터 실물은 없이 장비의 교범만을 연구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3' 통신 본사에서 실시하는 시스템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육을 약 2개월간 받기도 하였다.

2000년 5월, 계측장비의 일부인 안테나 설치를 위한 철탑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 8월 중순에 종료되었다.

미국에서 실시한 시스템 교육은 약 2주일이 소요되었고,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본사의 엔지니어에 의해 다시 한번 52전대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후 교범과 씨름 하며, 교관에게 배운 지식을 되새기며, 차츰 시스템에 익숙해질 즈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수락 검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수된 계측장비, 과연 T-50 국산 고등 훈련기의 개발과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내 몫을 다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공군 최고의 조종사들과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고, T-50 사업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 틈 없이 바쁜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후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들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행시험계측팀 직원들이 담당하였다. 주말과 일요일도 없이, 때로는 새벽 동이 틀 무렵까지 KAI 직원들과 함께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계측대 전 요원의 노력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점차 안정이 되어 갔다. 그리고 그 무렵, T-50이 처녀비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사전에 지상에서 엔진 Run-Up과 저속·고속 활주시험이 완료된 상태였다.

T-50, 항공을 날다!

드디어 대망의 2002년 8월 2일! 단지 52전대 계측 지원대 요원이었을 뿐이지만 내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전대에 진입한 이후 첫 비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며 항공기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T-50의 초도비행이 있던 날 오전, 전대 건물 사이에서 초조한 듯 담배 연기를 내뿜는 분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제11전투비행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T-50 최초 비행의 시험비행조종사였던 조광재 중령님이셨다. 검증되지 않은 항공기를 최초로 조종해야만 하는 시험비행조종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와 강한 압박을 했던 것 같았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중앙 및 지방 보도매체와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항공기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상황실과 주기장에 가득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당당하게 활주로에 위용을 드러낸 T-50, Golden Eagle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드디어 관제탑으로부터 이륙허가가 떨어지고 굉음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T-50.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동시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상황실에는 침묵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륙 전의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상황실에서 주기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은 활주로 한 쪽 저 먼 끝에서 다가오는 반짝하는 불빛을 주시하고 있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두대의 항공기가 시야에 들어왔다. 선두의 Golden Eagle은 너무도 당당하게, 두 바퀴는 '아무 이상없다'는 뜻의 시각적 신호인 하얀 연기를 뿌리며 사뿐히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T-50의 처녀비행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날은 공군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에서 10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로서의 당당한 위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날이 되었다.

지난 2006년 1월 말로 T-50 체계 개발은 단 1건의 사고도, 인명손실도 없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잔여 무장 시험들을 남겨놓고 있다.

공군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비행시험 원격 계측장비를 정비관리하는 정보통신병과 전산장비 정비 부서관으로서 T-50의 항공기 체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이제 2009년 3월까지 TA-50(전술입문기) 잔여무장 시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모든 계측지원대 장비들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



숫자 및 그래프 형태로 수신한 자료를 재처리·가공하는 장비



항공기에서 송신하는 시험비행자료를 수신하는 안테나

장영희 교수의 「생일」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장영희 교수가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칼럼 ‘영미시 산책’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 ‘생일’을 책제목으로 삼은 것은 아마도 작가에게 닥쳐왔던 개인적인 역경과 그것에 대한 극복 덕분일

것이다. 저자가 2004년 척추암 판정을 받고 병실에 누워 글 쓰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쇠약해 졌을 때, 그때 저자를 지탱시켜 준 것이 바로 영미시 산책을 연재하는 일이었다고 하니, 책제목이 ‘생일 - 삶이 다시 시작 되는 날’이 된 것은 당연하다.

‘영미시 산책’이라는 칼럼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엄밀한 의미로 ‘시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이하게도 몇몇 시들은 전문(全文)이 아닌 일부분만 발췌되어 수록됐는데 이 역시 ‘산책’이라는 칼럼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원문과 번역문이 같이 실려 있는 것은 시라는 장르 자체가 번역이 힘들고 언어의 맛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 시집이라면 대부분 취하고 있는 형식이다. 「생일」에는 이에 더해 역자의 감상이 첨가되어 있는데, 일종의 해설이라고도 또는 감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때로는 그 시를 연상케 하는 저자의 일상, 소소한 생활의 투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김점선 와백의 삽화도 책에서 묻어나는 일상의 행복을 적절하게 스케치하고 있다.

주로 사랑이나 삶의 소중함에 대한 시들이 많은지라 마음에 드는 시가 있다면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에게 편지를 통해 선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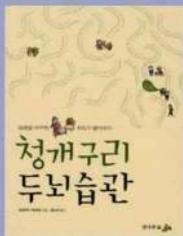


싱싱한 책

요네야마 기미히로의 「청개구리 두뇌습관」

나이가 60 가까이 되도록 인간 뇌는 새롭게 좋아질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 하에 쓴 책.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두뇌습관 30가지를 담았다. 신경내과 전문의인 저자는 “뇌세포는 노력에 따라 성능이 좋아지기도 하며 새롭게 뇌세포가 생겨나 두뇌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자극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면서 낯선 물고기 사진을 보면 후각 기억을 교란시키는 돌발 상황에 뇌가 정신 없이 움직이는데 이런 자극으로 뇌가 그만큼 단련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신선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에

제73기상전대 대령 염영경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운사될 해 길다 피포리 줄면
 산지기 외딴 집 눈언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고 엮듣고 있다
 - 박목월 작 「운사월」

6월은 황홀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신록의 계절이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은 기온은 19~22℃, 평균 강수량은 120~210mm에 이른다. 하순경부터는 여름철의 기상 특징인 장마와 돌변기상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연강수량의 약 60%인 700mm가 여름(6, 7, 8월)에 내리는데, 그 중에서도 장마 기간인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50mm가 내린다. 국지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세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집중호우는 총 535회로 연평균 20회 정도가 발생하는데, 월별로는 6월 82회, 7월 188회, 8월 265회로 6월말에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6월 초순 이전에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배수로 및 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곳을 정비하고, 저지대 침수다발지역 사전점검과 함께 지반이 약한 도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또한 뇌우의 피해를 받기 쉬운 전주, 변압기, 변전소 등을 점검하고 고지대에 위치한 부대의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등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까지 사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6월 말에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 및 이질, 장티푸스 등이 자주 발생하고 불쾌지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장병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기온상승과 습도증가로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시기이니 식중독이나 개인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절기로는 까끄라기(수염)가 있는 곡식(보리, 밀, 벼)을 수확하거나 심는다는 망종(芒種)이 6일이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신후인 하지(夏至)가 21일이다.

그윽한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 지저귀는 새소리도 잇을 것 같은 아름다운 계절 6월, 우리의 산하는 눈부시게 푸르고 만물이 약동하는 숨소리를 주위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망종(芒種)을 전후해 농가에서 보리수확과 모내기가 연이어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우리 공군 장병들 역시 바쁜 와중에도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 ⬆

<전래동화로 보는 法 이야기-출향전>이 흥미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되는 법이
재미있는 이야기에 접목되어서 설명된 것이 색다
르게 느껴져 흥미로웠고, 그 어떤 교재보다도 출
향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요죄'라는 죄
명에 대한 설명이 웃음을 주더군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손명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에 대한 그 미지의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
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를 위
해 봉사했다는 그 그지와 자부심의 표현이 군대
에서의 축구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작은 인내와 배려로 축구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대전광역시 중구 유은경

<별장 속 별장>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갈
이 군 생활을 하던 추임 2명이 지뢰제거 파견을
갔는데, 보고 싶던 두 추임의 얼굴이 사진 속에
나오니 반갑기도 하고 별탈 없이 지내는 것 같
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대곤아, 노원아, 파이
팅!"

전북 김제시 병장 이성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화배우 김수로 씨가
시범을 보여 모든 국민들의 응원 춤이 되었던
'꼭짓점 댄스~!' 우리 대한의 군인들도 따라
출수 있도록 자세히 나와있어서 새로웠습니다.
이제 생활관에서 축구 보며 꼭짓점 댄스 출날
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충주시 금가면 병장 정우창

김도원 소령님이 최후까지 조종간을 잡았다는
뉴스를 오늘 듣고 도서관 책꽂이에 있는 '공군'을
읽어 들었습니다. 군인정신은 아직 살아있음을 느
낄 수 있었고, 또 한번 가슴이 찡해지면서 김 소
령님의 아이들이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멋진 공
군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 준 故 김소령님께 애
도를 포함합니다. 부리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지내시
길 기도할게요.

대전광역시 서구 박정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6.6.1~2007.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95, 02) 506-6295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6. 6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두 사진의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독자퀴즈 업서에 표시하여 보내주세요.

2006년 6월호 독자퀴즈 문제



• 사진설명 : 제19전투비행단을 방문한 3군 사관생도



※ 정답 업서 마감일 : 6월 22일까지

2006년 5월호 독자퀴즈 정답



2006년 5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 경기도 포천시 김석진
- 대전광역시 서구 박정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손명선
- 대전광역시 중구 유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유홍상
- 전북 김제시 병장 이성지
- 충남 서천군 임복희
- 충북 충주시 병장 정우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성룡
-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최수정

50~60년대 복식의 공군 조종복과 헬멧을 기증해주세요!

한국 영화계의 거장 故 신상옥 감독, 영화 <빨간 마후라>로 유명한 신 감독의 기념관에 전시할 50~60년대 복식의 공군 조종복과 헬멧을 기증해주세요.

영화 <빨간 마후라>를 제작하며 대한민국 전투조종사들의 모습에 반했다는 신 감독, 기념관에 비치된 조종복과 헬멧을 통해 미래의 '빨간 마후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06-6291~6, 042-552-6291~6

보내실 곳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우편번호 321-929)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

간첩/안보사범 및 테러범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스물 셋, 범수

방공포병사령부 중위 장동하

태양도 나른해 서쪽으로 기우는 오후
전투체련에 한창이던 스물 셋, 범수
사무실로 달음박질한다, 큰 일 난 듯
두세 계단 한걸음에 오르는 뒷모습이
기우는 태양도 잡아 걸어 놓을 기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나서는 범수,
함박꽃 같은 웃음이 얼굴 가득 퍼고
소포꾸러미 한아름 가슴에 안았다

까치가 울어댄 것도 아닌데
반가운 소식 있을 것만 같아
기상나팔 소리보다 먼저 아침 맞은
스물 셋, 범수는 벌써 알고 있었다
설레임도 기다림도 인내심도 모두
누런 소포꾸러미에 함께 담겨 있음을
내 아버지도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곳서 배웠을 그 가르침을 내 스물 셋,
푸른 젊음에 똑같이 배우고 있음을



詩作메모

지난 한 달,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며 가슴 한 편이 아득해졌습니다. 장병 여러분! 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으며,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낌없이 청춘을 바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生)의 가치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미래입니다.